

## ‘한기부 대표회장 취임’ 정서영 목사 “기도·말씀으로 부흥 역사를”

###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열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한기부) 대표회장 아취임 감사예배가 1일 경기도 안양시 마벨리에에서 진행됐다. 제 56대 대표회장 이승현 목사가 이임했고, 정서영 목사(예장 합동개혁 총회장)가 제 57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의 절대 권위를 회복하겠다 △다음 세대 부흥의 발판을 단단히 세우겠다 △한국교회의 연합과 치유의 통로가 되겠다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교회의 본질은 다시 강해질 것이다. 우리가 연합하면 한국교회는 다시 민족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한기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의 심장과도 같은 사명을 감당해 왔다”며 “성령 집회, 회개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순결한 믿음, 한국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어 한 생명의 역사… 우리는 그 유산 위에 서 있다. 그 유산이 있었기에 한국교회는 세대를 넘어 복음의 흐름을 이어올 수 있었다”고 했다.

정 신임 대표회장은 “지금 우리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세속화는 교회의 윤리와 윤리를 넘어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지 침투하고 있다. 다음 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언어는 점점 더 낯설게 들린다”며 “그러나 교회는 위기 속에서 강해졌고, 부흥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시작됐다. 오늘 우리가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의 절대 권위를 회복하겠다 △다음 세대 부흥의 발판을 단단히 세우겠다 △한국교회의 연합과 치유의 통로가 되겠다며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교회의 본질은 다시 강해질 것이다. 우리가 연합하면 한국교회는 다시 민족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임한 이승현 직전 대표회장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를 때일 수록 부흥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교회는 사실 부흥사들에 의해 성장해 왔다”며 “언제부턴가 부흥사들을 경시하는 이상한 풍조가 생겼다. 그것이 부흥운동과 성령운동을 퇴보시켰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려면 부흥사의 역할이 필요하



한기부 정서영 신임 대표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등 이·취임 감사예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다.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한다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며 “이 일에 있어 정서영 대표회장님과 한기부 회원들의 사역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지혜 목사(상암교회)가 사회를

본 1부 예배에선 이현숙 목사(운영회장)

가 기도했고, 김연찬 목사(운영총무)의 성

증정, 심원보 목사(증경회장)의 격려사, 취임패 증정, 정서영 신임 대표회장의 취임사, 회장단 및 실무임원 소개, 격려사 및 축사, 축하패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격려사를 전한 송일현 목사(사장)는

“한기부 제56대 회기를 잘 마치게 하시고,

제57대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

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정서영 신임

대표회장님과 회원분들이 성령에 의지해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점에서 깨어나는

역사를 이뤄주실 것을 확신한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쓰는 한

기부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풍일 목사(증경회장)는 격려사를 통



한기부 신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오른쪽)가 이승현 직전 대표회장에게 취임패를 받은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고 했다.

이 밖에도 한기부 증경회장들이 엄정묵·김조윤·보한·정여균·한경하·이우화·조래자 목사가 축사했다.

3부 특별기도회에선 이광택 목사(성회본부장)의 사회로 참석자들은 △정서영 대표회장의 성령 충만과 사역의 기쁨부음을 위해 △한기부의 영적 부흥과 연합을 위해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이로운 지도력을 위해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부흥사들의 영적 각성과 이단 척결을 위해 △모든 연합집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했다.

이후 송창호 목사(선교회장)의 진행으로 4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박승주 목사(증경회장)가 ‘새 출발을 위한 축복기도’를 드렸고, 정서영 신임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축하 케이크를 자르며 새 출발을 다짐했다.

정서영 신임 대표회장은 개신대학원대학교(신학석사)와 서울기독대 대학원(Ph.D.) 등을 나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한국교현연합(한교연) 대표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세기총)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진영 기자

### 김두석언약신학연구소, ‘2025 송년 언약세미나 및 기념식’ 개최

칼빈대 유영진 교수, 사마리아 여인 사례 통해  
성경의 역사적·신학적 의미 설명

김두석언약신학연구소(소장 김선경 선교사)가 1일 오전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4층 믿음홀에서 ‘2025 송년 언약세미나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언약신학의 마지막 거장으로 불리며 칼빈대학교에서 후학을 길러낸 김두석 교수의 신학적 유산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 김 교수의 제자인 유영진 교수(칼빈대학교)가 강

제8회 세계직장 선교대회  
‘가서 제자 삼아라’ 》 7면

로제타 셔우드 훌 135주년… 기념행사·음악회 》 23면



칼빈대  
유영진 교수



국제해세드선교회  
이사 이판국 목사

사로 나서 ‘언약과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사마리아 여인의 정체성과 영생, 참된 예배라는 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부정한 여인’으로 보아왔던 해석이 성경의 전체 맥락과 구약적 배경, 그리고 1세기 유대사마리아 사회 상황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먼저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오랜 해석들을 보면, 그녀를 남편을 여러 번 바꾼 부정한 여성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초기 교부였던 오리겐은 ‘다섯 남편’을 모세오경에 비유했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오감으로 알레고리화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열왕기하 17장의 이방 종교 혼합주의를 적용하여, 다섯 남

사회 구조에서 찾는 시각이다. 그러나 이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오히려 그녀가 율법 안에서 가능한 한 성실하게 살아보려 했고, 계대결혼이나 고엘 제도와 같은 고대 근동의 복잡한 가족 제도를 배경으로 여러 차례 남편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명기 25장의 계대결혼 규례, 레위기 25장의 기업무를 자고엘 제도, 루기서와 창세기 38장의 다발 이야기는 이러한 점을 이해하게 한다. 그녀의 과거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그 시대의 가족 제도 속에서 발생한 비극적 역사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생’과 ‘참된 예배’의 주제로 넘어가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생수는 단순히 마시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의미한다. 이것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적 생명이며, 예수는 그녀의 과거를 드러내셨지만 정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초청했고, 하나님께 찾으시는 예배는 장소가 아닌 ‘영과 진리’



김두석언약신학연구소가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2025 송년 언약세미나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최승연 기자

에서 드리는 예배임을 선포했다. 이 점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기보다, 예수께서 복음을 드러내신 소중한 신앙의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곧으로 유 교수는 “결론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정체성은 단순한 도덕적 평가만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녀는 복잡한 삶의 역사 속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 공동체의 복음 전달자로 변화되었다. 그녀가 받은 생수는 개인적 구원에서 그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이끄는 증언의 삶으로 이어졌다.

오늘 우리 또한 과거의 상처나 실패로 자신을 규정할 필요가 없으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과 진정한 예배자로 서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고 했다.

이어 이판국 목사(국제해세드선교회) 이사가 축사를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우리의 사역과 노력들이 더 큰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에게 힘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후원과 기도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세미나는 이어 김두석 박사 유작, 모든 저서 및 논문집 영어 및 불어 번역본 전자출판 기념회, 가나, 토고 언약신학교 설립 기념회, 김두석 박사 종이책 및 선물 증정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판국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최승연 기자

##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055-286-9004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

#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은 무엇인가?”

한국현대예배학회, 제4회 국제 심포지엄 남군산교회서 개최  
레스터 루스 교수, 현대 예배의 구조와 역사 분석  
“음악적 흐름이 만드는 예전”… 현대 예배의 특징 제시  
양정식 교수 “성가대는 예배자의 영적 형성의 공간”  
가진수 교수 “수직적·수평적 찬양… 선곡이 예배를 결정한다”



제4회 한국현대예배학회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 강연 현장 전경. ©한국현대예배학회

한국현대예배학회(회장 가진수 교수)는 최근 남군산교회(담임 이신사 목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찬양'을 주제로 제4회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학술행사는 예배 현장의 실제 문제와 현대 예배의 역사적·현대적 토대를 함께 조망하며, 다음 세대 예배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예배에 대한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듀크신학교 예배학 레스터 루스 교수(Dr. Lester Ruth)는 현대 예배와 찬양의 역사와 흐름에 대해 강의를 전했다. 또한 양정식 교수(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대에 대해, 학회 회장인 가진수 교수(미국 월드미션 대학교 예배학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팀'에 대해 선택강연을 진행하며 찬양과 예배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했다.

첫 강연자로 나선 레스터 루스 교수는 '현대 예배와 찬양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현대 예배의 특징과 역사적 기원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루스 교수는 현대 예배

(Contemporary Praise & Worship)의 핵심 특징을 △현대적이고 이해 가능한 언어 △음악 중심 구조 △열정·강렬함 등 감정의 중시 △신체적 표현과 비형식적 기술(Technology) 활용도 증가 등으로 정리하며, "현대 예배는 음악적 흐름(flow)에 의해 구성되는 예전"이라고 했다.

또한 루스 교수는 시편 22편, 히브리서 13장 등 현대 예배 신학을 형성한 핵심 본문들을 제시하며, "성경 신학이 현대 예배의 구조와 내용 형성에 깊이 관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대 예배에서 음악이 핵심이 된 이유를 △감정의 중요성 △대중음악의 자연스러운 수용 △오랜 회중 찬양 세트의 등장 △기술 발전 △전문 예배 인도자의 증가 등으로 설명했다.

선택 강의에서 양정식 교수(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대를 주제로 성가대의 본질과 실제적 역할을 설명했다. 양 교수는 성가대를 '예배자의 영적 형성'(Spiritual Formation)이 가장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정의하며, 찬양대가 예배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신앙 형성 △정서적 회복 △공동체적 유대감을 제시했다.

또한 양 교수는 성가대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네 가지 습관(10분 전 도착, 연습을 예배로 만들기, 가사 묵상, 무대 밖의 삶 강조)을 제시하며 실제적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 다른 선택 강의를 진행한 가진수 교수(월드미션대학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팀을 주제로 찬양 선곡 기준을 설명했다. 가 교수는 찬양의 속성을 '수직적(Vertical)'과 '수평적(Horizontal)'으로 구분하며, 주일 공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경 본문 기반 찬양 등 수직적 찬양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 가 교수는 "찬양 한 곡의 선택이 예배 전체 분위기와 신학을 결정짓는다"며, "선곡을 이해 없이 감성적으로만 고

르면 예배의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현대예배학회는 '현대 예배의 진리를 찾아 미래를 이끄는 이란 슬로건을



(왼쪽부터) 양정식 교수, 남군산교회 이신사 목사, 레스터 루스 교수, 가진수 교수가 심포지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현대예배학회

갖고, 다음 세대에 옮바른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고, 예배를 통해 한국교회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됐다.

백선영 기자

## 구세군, '2025 자선냄비 캠페인' 시동… 희망의 불빛 97년 전통 잇는다

광화문서 시종식 열고  
NFC 비대면 기부 도입…  
시민 참여 확대 선언



(우측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김도형 종무실장, 구세군 차순삼 여성사역총재, 대통령비서실 하은아 국민통합비서관, NCCK 박승렬 총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구세군 김병윤 사령관 ©구세군



김병윤 사령관이 발언하고 있다. ©구세군

반의 비대면 기부 시스템 도입이다. 스마트폰을 모금판에 가볍게 태그하는 것만으로 앱 설치 없이 약 14초 만에 기부가 가능해져, 현금 없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됐다. NFC 기부는 전국 주요 거리뿐

아니라 LG유플러스 자영점, 제주공항 면세점 일부 상점 등으로 확대 운영된다.

거리 모금 외에도 스페셜자선냄비(재능 기부), 어린이집·학교 연계 나눔교육, '사랑의 달' 캠페인, 기업 사회공헌 온라인 선물 지원 '산타트리오' 등 참여 방식이 마련됐다. 구세군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간편결제를 통한 온라인 후원도 열려 있다.

김병윤 사령관은 "구세군은 지난 97년 동안 아려운 이웃 곁을 지켜왔고, 올해도 그 사명을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들의 따뜻한 참여가 모일 때 우리 사회가 더 밝고 따뜻해질 것"이라고 했다. 노형구 기자

## 조영길 변호사 “차별금지법, 남녀 창조질서 부정”

살롬나비 월례포럼서 발제

살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가 최근 동산교회(유종필 목사 사무)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성경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62회 월례포럼을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법무법인 아이엔에스(I&S) 대표 변호사인 조영길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엔에스(I&S) 대표 변호사)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성경적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성경은 그리스인들과 히브리인들 사이의 차별, 남성과 여성의 차별, 그리고 나아가 따른 차별을 모두 거절하며,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 자체는 본래 성경적 가치관이 들어가 있는 차별 자체의 금지를 의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요즘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차별금지법 자체는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불임으로써 죄악인 동성애와 성별의 무분별한 변경을 응호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악한 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재 차별금지법은 마태복음 7장 15절의 노략질하는 이리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이 정착되면, 이는 남녀로 창조된 질서를 부정하는 신앙적 배도가 되며, 우리의 아이들이 타락하는 현실적 배도가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영적 배도가 되고 만다"며 "우리는 그립듯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차별금지법에 분명히 반대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며, 이는 그 행위를 미워하고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바른 길을 의미한다"고 했다.

아울러 "거짓된 얼굴로 다가와 고귀한



살롬나비 제62회 월례포럼 참석자 기념 사진. ©살롬나비

신앙과 삶의 가치를 미혹하는 그들에 맞서 시대를 분별하고 끌 끼어 있는 신앙인 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한 대표는 인사말에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잘 이해하고 이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시점에 전문가인 조영길 변호사를 초청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배려한 동산교회의 대응이 바람직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장지동 기자

## 산정현교회, 신임 담임목사에 장재우 목사 청빙



서울 서초구 산정현 교회가 얼마 전 열린 공동의회에서 교회는 김관선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는 한편, 장재우 동사목사(사진)

를 새로운 담임(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산정현교회는 1906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분립된 이후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독특한 족적을 남겨왔다. 1956년생인 김관선 목사는 39세의 젊은 나이에 산정현

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뒤 약 30여 년간 교회를 이끌어 왔다. 긴 시간 동안의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원로목사로 추대됨에 따라, 산정현교회는 장재우 목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리더십 전환을 맞이하게 됐다.

노형구 기자



# 하이패밀리, '장례후견인' 제도로 새로운 돌봄 체계 구축

고독사·무연고 장례 공백 해소 위한  
생전 장례 설계 및 사후 전담 시스템 본격 가동

1인 가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며, 특히 시니어 1인 가구의 급증은 우리 사회에 깊은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가족이나 지인의 부재 속에서 삶의 마지막을 맞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고독사와 무연고 장례 문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하이패밀리(대표 송길원)는 '1인 가구돌봄 센터'를 공식 출범시키고, 생전 계약 기반의 '장례후견인' 제도를 도입하며 사회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장례후견인 제도는 본인이 생전에 남긴 장례 의사에 따라 전문 기관이 장례

전 과정을 책임지고 대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종교 의식, 장지, 장례 방식, 예산 등 세부 항목을 당사자가 직접 정할 수 있어, 고인의 뜻을 존중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특히 현행 법령상 무연고자는 자자체가 최소한의 절차만으로 장례를 진행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발견자연, 특수 청소 문제, 형식적 장례 등 여러 문제를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이 제도는 장례 공백을 해소하는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반 후견 제도가 사망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 것과 달리, 장례후견인 제도는 사망 이후에 효력이 본격적으로 발휘된다.



하이패밀리가 제공한 한 노인의 '엔딩 파티' 현장의 모습. ©하이패밀리

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장례식장 예약, 장지 선택, 사망 신고 연계, 종교 의식 지원, 공영장사 절차 대응 등 장례의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며, 유품 정

리와 특수 청소 연계, 추모 기록 보관과 같은 사후 정리까지 전담한다. 이를 통해 유족이 없거나 연락이 달지 않는 경우에도 고인의 마지막이 혼란 없이, 그리고 존

중 속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돕는다.

송길원 대표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장례 공백과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교회와 지역 공동체가 돌봄 인프라 구축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이패밀리는 장례후견인 제도 도입을 통해 무연고 사신 처리 감소, 고인의 의사 존중, 품위 있는 장례 보장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자자체, 의료기관, 장사 공동체가 부담해 온 업무를 경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이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1인 가구돌봄 센터'는 장례 절차 대행 뿐 아니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전 돌봄 활동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PIR(수

동 적외선 동작 감지 센서)을 활용한 안전 확인 체계 운영, 병원 동행 서비스, 생전 유품 정리, 엔딩 파티, 마지막 소원 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니어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상담, 의사 확인, 장례 설계서 작성, 위임 계약 체결 등을 거쳐 사망 통지 시 즉시 집행 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시니어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개인의 마지막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하이패밀리의 장례후견인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님의 제도적 해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공동체가 함께 고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최승연 기자

## '2026 세계성시화운동 전국대회' 1차 준비기도회 열려

내년 전국대회가 열릴 이천은광교회 금요기도회에서 기도

'2026 세계성시화운동 전국대회'를 위한 1차 준비기도회가 최근 이천은광교회(담임 김상기 목사, 이천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에서 열렸다.

'세계성시화운동 전국대회'는 지난

2025년 1월에는 대구에서 대구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여정택 목사) 주관으로 열렸으며, 올해는 지난 6월 전북 군산에서 전북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김도경 목사)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1차 기도회에는 김요한 목사이천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여정택 목사) 등 이천성시화운동본부 임원들이 함께했으며,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다.

김 목사는 "성시화운동은 대학생 선교를 기반으로 민족복음화운동을 주도한

김준곤 목사에 의해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호반의 도시 춘천실내체육관에서 춘천성시화운동 전도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성시화운동은 복음전도와 사랑의 섬김과 실천, 복음전도와 사회책임을 감당한다. 특히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하여 한 도시에 있는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모아 복음 전파와 사랑의 실천 사역을 감당한다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기도회를 인도한 김상기 목사는 "2026 세계성시화운동 전국대회를 잘 준비해 풍성한 은혜와 비전이 충만하여 성시화



'2026 세계성시화운동 전국대회'를 위한 1차 준비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운동이 더욱 확산되도록 기도하자"며 도전했다.

특히 "우리 이천은광교회와 이천성시화운동본부가 최선을 다해 준비해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하자"고 했다.

2차 준비기도회는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오범열 목사를 비롯한 임원과 시군 대표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2월 17일 이천은광교회에서 열리고 했다. 그리고 내년 1월 전국 대표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2026 세계성시화운동 전국대회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와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이천성시화운동본부 주관으로 이천은광교회에서 열린다. 전국대회 일자는 3월과 4월 중에 정하기로 했다.

김진영 기자

## 한국가족보건협회, '마약중독 예방지도사 10기 과정' 개강... 마약 청정국 회복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본격화

확산되는 마약 중독 문제 대응 위해 체계적 커리큘럼 마련...  
온라인 교육으로 접근성과 실효성 강화

한국가족보건협회(KAFHA, 대표 김지연)는 최근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마약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중독 예방지도사 교육' 제10기 과정을 개강한다고 13일 밝혔다. 협회는 전문성을 갖춘 예방 지도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다시 '마약 청정국'으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10기 교육은 2025년 12월 3일부터 16일까지 총 6일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12월 3일과 4일, 10일과 11일, 15일과 16일에 강의가 이루어지며, 여기에 20시간의 과제 수행이 포함돼 있어 실질

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됐다. 상당학박사이자 약사인 김지연 대표를 비롯한 전문 강사진이 직접 강의를 맡아 현장 경험에 담긴 교육 내용을 전달한다.

교육은 초대졸 이상 학력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마약 예방 활동에 관심 있는 초보자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 수강생에게는 학습을 돋는 보충 자료가 제공돼 이해도를 높인다.

커리큘럼은 마약중독 예방지도사가 갖춰야 할 핵심 지식과 실무 능력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중독의 개념, 마약류의 종류, 약물 동역학(Pharmacokinetics)과 독성학(Toxicology) 등 기초 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중독에 이르는 작용 메커니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포함됐다.

또한 예방 교육 시 유의해야 할 표현,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 관련 법규 해설 등 실무 중심 내용도 강조된다. 교육 수료 조건은 출석률 90% 이상과 필수 과제 제출이며, 관련 일정 및 신청 방식은 한국가족보건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는 지금,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할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10기 과정을 통해 중독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알리고, 건강한 사회 형성을 이끌 전문 인력을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족보건협회는 그동안 약 1500명의 예방지도사 수료자를 배출하며 교육 기반을 확장해왔다. 협회는 앞으로도 가정과 지역사회 전반에 올바른 중독 예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전문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승연 기자

## 교정상담학회, 청주소년원 현장 참관 프로그램 진행

현장 기반 상담 접근 검토... 청소년 사회 복귀 지원 방향 제시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성결대학교)가 최근 충북 청주시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을 방문해 현장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청주소년원의 교육시설과 생활관 등 주요 공간을 둘러보는 현장 견학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확

인하며 상담 지원과 교정상담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교정상담학회는 이번 참관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교정상담적 접근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을 점검했으며, 상담전문가의 실천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학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정기관 방문 및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해 현



교정상담학회 청주소년원 현장 참관 기념 사진.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장 중심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장지동 기자

**동아제약**

**동아보감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증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생년기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의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일반의약품 60포(23g x 10포 x 6)

동아제약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알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필: 2023-1688-003600

#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평화 합의에도 인도적 위기 여전

## 수백만 명 굶주림과 대규모 이주 사태 이어지며 국제사회 우려 고조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콩고민주공화국(DRC) 정부와 M23 반군이 평화 프레임워크에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인도적 위기는 여전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CDI는 DRC 동부 지역에서는 수십 년에 걸친 분쟁의 여파가 계속되며, 삶의 터전을 떠난 주민들은 안전을 찾아 방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카타르 도하에서 체결된 이번 합의가 장기적 평화로 이어지기를 모든 당사자가 기대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콩고침례교연합(Union of Baptist Churches of Congo) 프로젝트 담당자인 마펜지 루메토 교수는 CDI와의 인터뷰에서 “북키후(North Kivu)와 남키후(South Kivu) 지역에서 수천 명의 주민이 무력 충돌을 피해 마을을 떠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M23 반군이 르완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과밀 상태인 피난민 캠프가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루메토 교수는 단순한 이주 문제를 넘어 심각한 식량 불안정이 지역 전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분쟁은 주

민들이 필수 물자를 확보하는 것을 가로막고, 농경 활동을 중단시켰다. 학살, 납치, 성폭력, 민간인과 구호 요원에 대한 표적 공격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CDI는 도하 프레임워크가 인도적 지원 접근성 보장, 피난민 귀환·정착, 전투원 재통합, 반군 통제지역에 대한 국가 권한 회복, 국가 대화, 정치 개혁, 화해보상 체계 등 총 8개 조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화된 대화와 신뢰 구축, 단계적 긴장 완화 접근을 강조하고, 민간인 보호와 인권 존중, 실향민의 안전한 귀환, 국가적 화합 증진을 우선 과제로 명시했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진단은 여전히 암울하다. 세계식량계획(WFP)은 DRC 전체 인구 중 약 2,500만 명이 높은 수준의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가운데 300만 명은 ‘비상(Emergency)’ 단계의 기아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WFP 콩고 사무소장 신시아 존스는 “많은 가정이 끼니를 거르고 생계를 유지하던 가축까지 팔아치우고 있다”고 전했다.

CDI는 동부 지역에서 분쟁으로 약 520만 명이 집을 떠났으며, 올해에만 160만 명 이상이 새롭게 피난민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분쟁 기반 이주 사태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다. WFP는 2026년 3월까지 충분한 지원금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동부 지역 긴급 식량 지원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존스 소장은 향후 6개월 동안 긴급 식량 및 영양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최소 3억 5,0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 보고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식량 불안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약 2,660만 명이 IPC 3단계 이상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보다 180만 명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여섯 개 지역은 상황이 한 단계 더 악화된 IPC 4 단계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세계식량계획(WFP)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약 2,500만 명이 높은 수준의 식량 불안을 겪고 있다고 보고했다. ©WFP/Michael Castofas

나타났다.

반박했다.

아프리카연합(AU)은 이번 합의가 실제로 이행되어야만 인도적 위기를 완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U는 성명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프레임워크의 정신과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후 마련될 6개 후속 의제를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DI는 현지 주민들은 오랜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불안과 굶주림, 폭력의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평화 합의가 종이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승연 기자

## 한국VOM “中 시온교회 위해 전 세계 5만 명 기도 참여”

중국 시온교회를 위한 24시간 릴레이 기도회에 전 세계 약 5만 명이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VOM, 대표 현숙풀리)와 미국 차이나에이드(China Aid)는 최근 진행된 기도회에 중국 내 성도들을 포함해 수만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중국의 박해를 받고 있는 ‘이른비 언약교회(Early Rain Church)’와 ‘메이플라워 교회(Mayflower Church)’가 공동 주최했으며, 줌(Zoom)을 통해 24시간 릴레이로 진행됐다.



에릭 폴리 목사와 현숙 폴리 대표가 시온 교회를 위한 24시간 릴레이 기도회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기도를 2시간 동안 인도했다. ©한국VOM

전현직 관계자 등 다수의 종교자유 전문가들이 참여해 강연과 기도를 이어갔다.

중국 내 성도들도 온라인을 통해 약 1만 명이 참여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의 방해가 있었다고 한다. 현숙 폴리 대표는 “기도 도중 급습구금 등의 사례가 보고됐다”며 “박해 속에서도 기도를 이루어간 중국 성도들의 믿음이 깊은 감동을 준다”고 전했다. 실제로 한 중국 목회자는 경찰이 집에 있어 기도회에 접속하지 못했지만, 같은 시간 경찰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릴레이에는 미국의 존 파이퍼(John Piper) 목사, 토니 퍼킨스(Tony Perkins) 목사, 터키에서 투옥 경험이 있는 앤드류 브런슨(Andrew Brunson) 선교사,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사는 “기도의 능력이 암제자들에게 뉴러움을 준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이번 릴레이 기도는 10월 초, 중국 정부에 의해 시온교회 담임 에즈라 진(Ezra Jin) 목사와 지도자 29명이 일제히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는 중국 가정교회를 대상으로 한 단일 규모의 단속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이들은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 지역으로 이송돼 구금 중이며, 중국 당국은 ‘불법 정보망 사용’, ‘불법 경영’, ‘사기’ 등 비종교적 혐의로 기소하고 있다. 노현구 기자

## 예수 세례 2천주년 앞두고 요르단, 글로벌 기념사업 본격 추진

성지 보호국가로서의 역할 강화하며 전 세계 기독교 순례객 유치 준비 가속화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요르단 정부가 2030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2,000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국제 기념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전 세계 기독교가 2033년 예수의 죽음과 부활 2,000주년을 포함한 일련의 대기념 해에 주목하는 가운데, 요르단은 그 첫 관문으로 평가되는 ‘요단강 건너 베다나(Bethany Beyond the Jordan)’ 세례지 기념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예수의 공생애가 시작된 이 세례지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성지이며, 요르단 왕국은 이를 기독교 유산의 핵심으로 보호하고 있다. 친서방 성향으로 알려진 암살라 2세 국왕의 지도 아래 관광부와 세례지위원회, 왕실이 공동으로 세계적 규모의 성지 기념행사 계획을 마련 중이다.

에마드 하자진 요르단 관광유적부 장관은 최근 Christian Daily International과의 인터뷰에서 “세례지위원회와 관광부, 왕실이 곧 기념행사의 종합 프로그램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독교가 전 세계 주민에게 이번 프로젝트가 글로벌 기독교 지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나사렛 출신으로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신임 사무총장에 취임한 보트루스 만수르 목사와의 협력 의지를 언급했다. 만수르 목사는 “요르단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번 역사적 기념 행사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나잘 상원의원(요르단 관광·유산위원회)은 이번 2,000주년 기념을 “전 세계 기독교의 연대를 보여주는 순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왕의 지도 아래 인프라 확충, 순례 서비스 확대, 글로벌 교회 지도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세례지는 기독교 유산의 핵심이며 요르단은 그 성지를 지키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CDI는 현지 관광업계도 이번 기념사업을 오랜 침체를 끊어낼 기회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보투어스의 하나 사월하는 “팬데믹과 가자 분쟁으로 순례객이 완전히 끊겼다”며 “휴전이 유지되는 지금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고, 그 중심에 예수 세례 2,000주년이 있다”고 했다.

관광산업은 요르단 GDP의 약 11.4%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2017년 기준 관광 수익은 약 33억 요르단 디나르(약 46억 달러)에 달했다. 요르단 정부는 이번 기념사업이 성지순례를 포함한 종교 관광의 성장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르단 정부는 예수의 세례지로 알려진 동요단강 지역을 세계 기독교 순례의 중심지로 재정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번 2,0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순례객 유치뿐 아니라, 요르단이 종교 관용과 기독교 성지의 수호자로서 국제사회에 전달해온 메시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요르단 ‘요단강 건너 베다니’ 지역의 침례 개발 구역에 조성될 예정인 ‘순례자 마을’의 조감도. ©MK Associates in collaboration with Mostaqbal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Consultants and Design Workshop

가사의 선정), 와디리(UNESCO 세계유산),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점인 사해 등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보유해왔다. 정부는 이들 명소와 함께 세례지를 종교·문화관광의 핵심 축으로 발전시키며 매년 2~5%의 지속적 관광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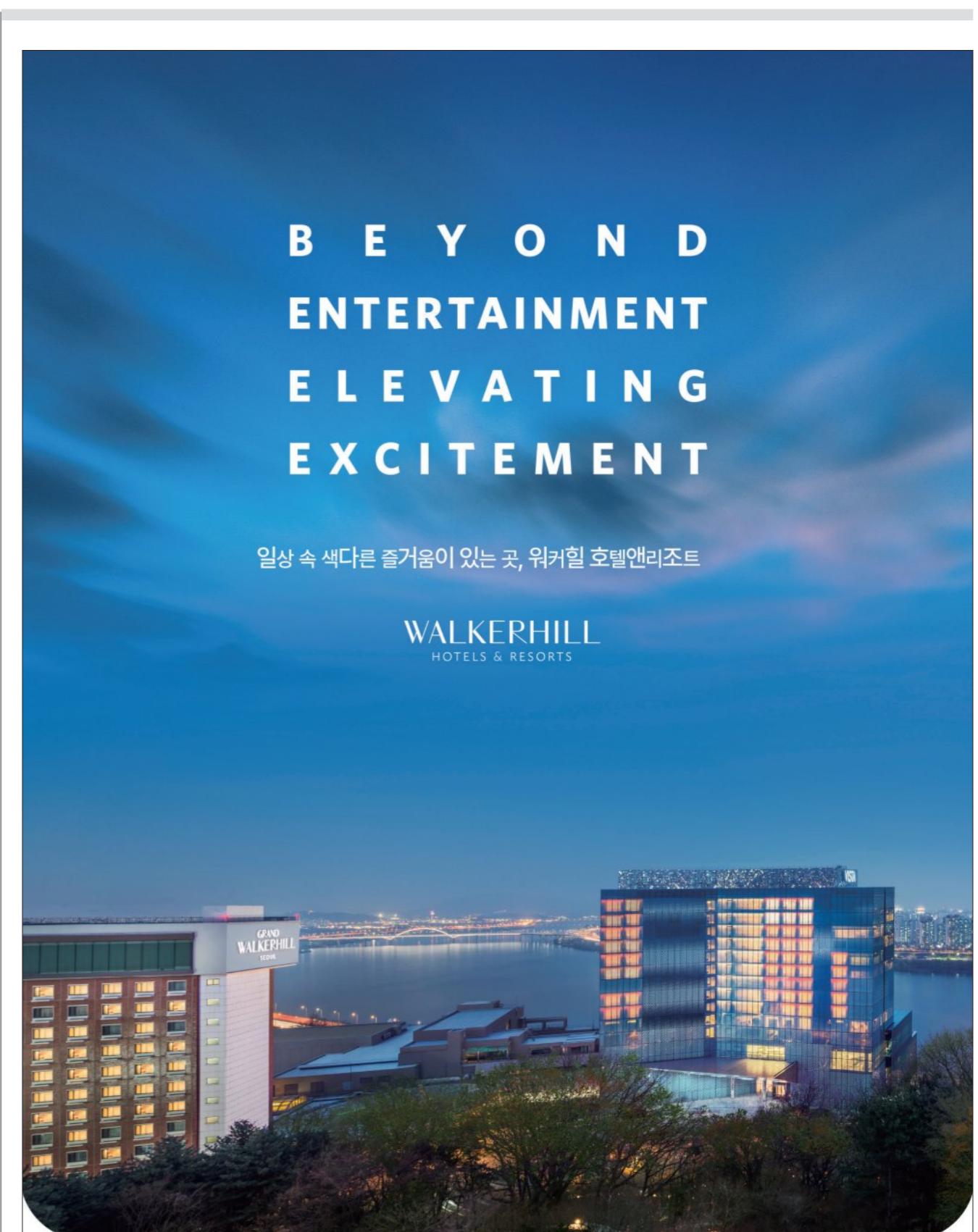
경제전망 측면에서도 요르단 재무부는 2026년 2.9%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며 관광 재도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성경고고학계는 요르단 전역에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100곳 이상의 지점이 존재한다고 보고하며, 이번 기념사업이 요르단의 성경적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르단 정부는 예수의 세례지로 알려진 동요단강 지역을 세계 기독교 순례의 중심지로 재정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번 2,0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순례객 유치뿐 아니라, 요르단이 종교 관용과 기독교 성지의 수호자로서 국제사회에 전달해온 메시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요르단 정부는 예수의 세례지로 알려진 동요단강 지역을 세계 기독교 순례의 중심지로 재정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번 2,0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순례객 유치뿐 아니라, 요르단이 종교 관용과 기독교 성지의 수호자로서 국제사회에 전달해온 메시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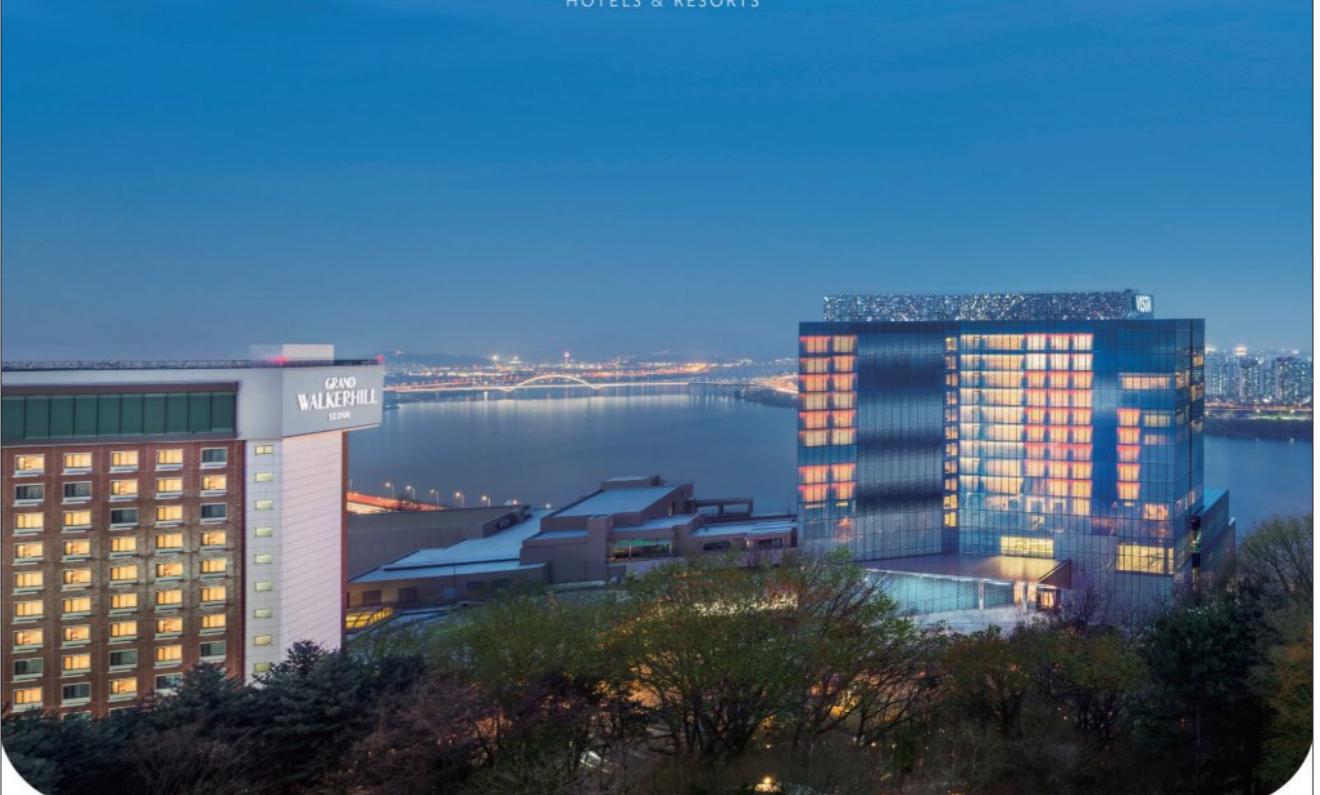
요르단 정부는 예수의 세례지로 알려진 동요단강 지역을 세계 기독교 순례의 중심지로 재정립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번 2,00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순례객 유치뿐 아니라, 요르단이 종교 관용과 기독교 성지의 수호자로서 국제사회에 전달해온 메시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요르단은 페트라(2007년 세계 7대 불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워커힐 호텔 앤 리조트

WALKERHILL  
HOTELS & RESORTS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겨 보세요.

KakaoTalk 풀러스친구

카카오톡 풀러스 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톡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 2025 제8회 세계직장 선교대회 개최… ‘1030 세계직장선교 비전’ 선포



박상수 대표회장이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



제8회 세계직장 선교대회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직선

29일 한국성서대에서 ‘가서 제자 삼아라!’ 주제로 진행  
2033년까지 선교사 10명 파송·30명 후원 비전,  
내년에 선교사 1명 파송, 해외 지회 1개 설립 추진

국내외 세계직장선교사들과 후원자들이 ‘2025 제8회 세계직장 선교대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 선교적 도전을 받아 다시 한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세계직장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주최 측인 세계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세직선 대표회장 박상수 장로)는 이날 2023년까지 선교사 10명을 파송하고, 30명을 후원하는 ‘1030 선교비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2026년에는 선교사 1명 파송, 해외 세계직장선교 회지회 1곳을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1월 29일 서울 노원구 한국성서대학교 로고스홀에서 ‘가서 제자 삼아라!’(마 28:19)는 주제로 진행한 제8회 세계직장 선교대회는 세계직장선교에 대한 소명 의식을 제고하고, 세계선교 현황 및 우수 해외직장선교 사례를 나누는 자리였다. 박상수 세직선 대표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계직장선교를 감당해 나가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세계직장선교 32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직장선교의 새 길을 열어가기 위해 세직선은 3가지 핵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첫 번째, ‘1030 세계직장선교 비전’을 지속 추진하여 창립 40주년이 되는 2033년까지 선교사 10명을 파송하고 30명의 선교사 후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수 대표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세직선 초대회장이자 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한직선) 명예이사장 박홍일 장로,

한직선 이사장 오광석 장로의 격려사, 한직선 대표회장 이훈 장로, 애티미 대표사 업자 윤영성 박사의 축사가 있었다.

박홍일 세직선 초대회장은 “세직선은 밖으로는 세계 주요 국가에 직장선교회를 개척 창립하고, 무너진 해외직장선교회를 재건하는 데 종력을 집중하고, 안으로는 국제회의, 국제대회 개최 시 방한하는 외국인과 체류 외국 유학생, 근로자 등 외국인 직장인을 상대로 세계선교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격려했다. 오광석 한직선 이사장도 “앞으로 세직선이 무너진 전 세계선교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고, 계속해서 세계선교를 감당해 나가는 주역으로 쓰임 받아 선교 대로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훈 한직선 대표회장은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세직선의 본질적인 선교 활동이 재정립되고, 실천 계획들이 구체화되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전도 사역의 열매를 맺는 데 한 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성 애티미 대표사업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새롭게 무장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또 세직선 공동회장 김미경 권사의 헌금기도, 동산교회 글로리아워십찬양단(단장 이미숙 권사)의 헌금특송, 대회 준비위원장 김광수 목사의 참석자 소개 및 광고에 이어 다 같이 직장선교의 노래를 제창한 후 세직선 지도목사 정성봉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제2부 2025 세계직장 선교대회는 염진아(집사)와 김기현(집사)이 공동으로 진행해 왔다. 박상수 세직선 대표회장은 “이번 선교대회는 식었던 선교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우리의 기쁨을 뛰게 만들었다”며 “세직선은 이제 일어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위해 계속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우 교수는 21세기 주목받는 선교적 주제들로 ‘주변부로부터의 선교, 선교적 교회, 기후 위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생명선교, 새로운 세대를 위한 선교, 온라인 선교, 다문화 선교 종체적 선교’ 등을 꼽았다. 또 한국교회의 세계선교를 위한 전망과 과제로 ①선교사·목회자 중심의 선교에서 현지의 필요성에 따른 다양한 선교 형태로 전환 ②상호 협력의 토대 위에 개척선교에서 현지 교회와 목회자를 세우는 선교로의 전환 ③지역선교 및 다문화선교를 위한 지역교회의 선교적 의미와 역할 전환 ④교회의 침체 현상에 따른 저성장 시대의 지속 가능한 선교구조 형성 ⑤평신도의 선교적 역할 증대를 소개했다.

세계직장선교 발표 시간에는 김용기(알바니아 선교사)가 알바니아 개신교 선교의 세 번째 물결을 맞아, 알바니아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견인하기 위해 플랫폼 선교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또 알로토 인도 선교사의 영상 발표, 세직선 후원선교사 6명의 축하 영상이 있었다. 이날 일정은 박상수 대표회장의 세직선 비전 선포, 한국기독교직장선교목회자협의회(직목협) 상임회장 김창영 목사의 합심 기도(결단의 시간) 인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후 세직선 지도목사 이영환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세직선은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11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 3인 1조로, 하루 한 끼 급식하면서 릴레이 중요보금식기 도를 진행해 왔다. 박상수 세직선 대표회장은 “이번 선교대회는 식었던 선교에 대한 열정을 회복시켜 우리의 기쁨을 뛰게 만들었다”며 “세직선은 이제 일어나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위해 계속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 KCDI, 41기 인지행동 심리상담사 양성과정 수료식 열어

한국상담개발원(KCDI, 원장 손매남 박사)은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KCDI 세미나실에서 41기 인지행동 심리상담사 양성과정 수료식을 진행했다.

인지행동 심리상담사는 개인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 살피고, 비합리적인 사고나 왜곡된 사고를 발견하여 건강한 사고로 바꿔도록 돋는 상담 기법이다. 특히 우울증과 불안장애, 분노, 중독 등 현대인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다. KCDI는 지금까지 470여 명의 인지행동 심리상담사를 배출했다.

손매남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은 “사람들의 정신적, 신체적 질병 중 최소 75% 이상이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된다”며 “인지행동 심리상담은 건강한 사고로 전환되도록 자동화된 사고를 훈련하며, 사고의 유연성과 치유를 경험하게



27일 41기 인지행동 심리상담사 양성과정 수료식이 열렸다. ©한국상담개발원

하는 심리치료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인지행동 심리상담사 2급 과정은 5주 간 불안, 분노, 우울, 아동·청소년 문제, 부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1급 과정은 정신장애, 인격장애, 중독, 공황장애, 강박장애 등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수료생에게는 인지행동 심리상담사 1, 2급 자격증을 부여한다. KCDI 인지행동 심리상담사 과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등록번호 2011-0677)되어 있다. (문의 1544-7509) 이지희 기자

### 오픈도어 칼럼

#### 크리스마스의 기쁨



윤상덕 목사

매년 11월만 되면 우리 교회로비는 북적거린다. 선물이 가득 쌓이고 쌀 포대와 라면박스도 넘친다. 선물은 우리 파송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 사님. 협력 선교 기관으로 전해진다. 쌀과 라면박스는 나눔 기관과 자립이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성도들께로 전해진다. 매년 선물이 넘쳐, 선교사님들께로의 헌물 신청은 신청 시작 반나절이 못되어 마감된다. 어느 가정에서는 매년 20kg 쌀, 100포대를 헌물하기도 한다. 받으시는 분마다 연락을 주신다.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들이 너무 기뻐한다고. 그래서 나는 이 사역에 이름을 붙였다. “Joy of Christmas”

우리 교회로비에는 이런 기쁨의 선물들로 가득한데, 이 추운 날, 칼바람 물아치는 백두산 자락에도, 암록강 근처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집 마당에 도그릴까. 지금도 탈북을 시도하다 처형되는 땅, 내가 섭기는 교회에서 차로 20분만 달리면 강 건너 북한 땅이 저리 도 선명히 보이는데, 그곳에는 칼바람, 뒤사리 맑고 기쁨이 흐르고 있을까. 또 무슬림의 칼이 있는 땅에서, 자연재해가 할퀴고 간 땅에서, 너무도 냉담한 땅

윤상덕 목사(일산교회 담임목사,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이사)

초연결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종합 항만서비스 키어  
**BPA** | 부산항만공사  
BUSAN PORT AUTHORITY

20+1  
BPA  
부산항만공사 창립 21주년

**21번째의 도전**

바다의 가능성을 우리 모두의 가치로 만들어온 부산항만공사 21년,  
새로이 도약할 100년을 위해 부산항만공사는 세계로 힘차게 뻗어갑니다.

최첨단 스마트 항만 구축으로  
원활 지동화 항만 실현  
친환경 디지털 항만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북한 재개발과 함께 발전하는  
시민들의 항만공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로  
부산항의 국제적 위상 확장

시작합니다 —

# 나이지리아 교회 납치된 예배자 38명 석방

## 잇단 종교시설 공격으로 긴장 고조

이들은 코라주 예루루 지역의 그리스도 사도교회(Christ Apostolic Church)에서 기도회 도중 무장 괴한들에게 끌려갔다.

사하라리포터스(Sahara Reporters)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지난 11월 18일 밤

10명의 무장괴한이 교회에 난입해 예배 중이던 성도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면서 시작됐으며, 담임목사를 포함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공유된 주일예배 영상에는 한 설교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를 저주하지 말고 끝까지 신

임을 지켜야 한다”고 밝히는 장면이 담겼다. 예배당 밖에는 무장 경찰 차량이 배

치태 긴장 상황을 보여줬다.

코라주 압둘 라흐만 압둘 라자크 주지사는 인질 석방이 보라 티누부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작전의 결과라고 밝혔다. TVC뉴스는 티누부 대통령이 코라케비 지역의 ‘치안 붕괴’ 대응을 위해 예정된 G20 남아공 회담 참석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이번 작전에는 국가안보보좌관실, 국

가정보국(DSS), 육군, 경찰청, 해외정보국

등이 참여했고, 대통령 지시로 4개 특수 경찰팀이 투입됐다. 주지사는 생명을 통해 지역 지도자들과 종교단체, 주민들의 협력에도 감사를 표했다.

세계기독연대(CSW)는 납치범들이 처음엔 1인당 1억 나이라야(6,900만 원)를 요구했으나 나중에 2,000만 나이라야(1,400만 원)로 낮췄다고 밝혔다. 공격 세

력은 풀라니 무장조직으로 지목됐으며 납치 장면이 영상에도 포착됐다.

이번 사건은 최근 종교시설을 겨냥한 연속적인 무장 납치습격 중 하나다.

티누부 정부는 이같은 폭력이 종교 박해가 아니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마쿠르디 가톨릭 시제단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노사이드(집단 학살)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벤웨주 가톨릭 사제 출신이자 현 주지사 하이신스 알리아는 전날 “기독교인 표적 공격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오픈도어는 2019-2023년 사이 2만 명 이상이 납치됐으며, 그 중 상당 수가 종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납치는 테러 자금 조달 수단이자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에 이용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오픈도어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 살해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다고 밝히며, 지난 10년간 수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경 기자

## 멜 김슨, 부활 다룬 2부작 영화 제작... “프로테스탄트 시선에서 출발”



멜 김슨 감독. ©기독일보 DB

영화 ‘페션 오브 크라이스트’로 잘 알려진 배우 겸 감독 멜 김슨의 차기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룬 2부작 영화로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각본가 랜달 월리스(Randall Wallace)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 아이디어가 “프로테스탄트가 강조하는 부활 신학”에 대한 대화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월리스는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공개된 팟캐스트 ‘Verité Vision’에서 “댈러스에서 김슨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부활 이야기’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월리스는 자신이 침례교인이라고 밝히며,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앙 표현 차

이를 언급했다. 그는 “가톨릭은 십자가의 고난과 수난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부활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가톨릭 십자가가 예수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개신교는 ‘빈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6년 영화 핸슨 고지(Hacksaw Ridge) 흥보 기간에도 이 논의를 이어갔다. 당시 월리스는 김슨에게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슨은 한동안 말없이 듣다가 “당신을 위해 미사를 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슨은 영화 제작을 영적 전투로 인식하며 월리스에게 “사탄이 당신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월리스는 능담을 섞어 “사탄은 이미 너무 많

은 침례교인을 잡고 있어서 나에게 관심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며, 오히려 김슨이 영적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뒤 기도로 덮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리스는 “이 영화는 돈을 위한 것도,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도 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슨이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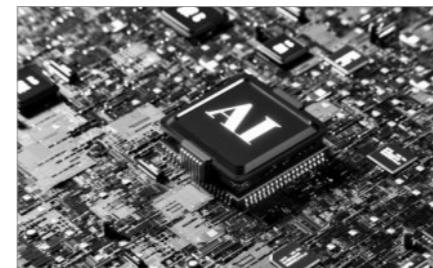
이 영화는 ‘The Resurrection of the Christ’(기제)라는 제목으로 2027년 개봉 예정이다. 김슨과 월리스가 공동 각본을 맡았다. 월리스는 “아무도 보지 못한 방식으로 부활을 다룰 것”이라며 “아름답지만 소름끼칠 수도 있고, 결코 잊을 수 없는 영화”라고 예고했다.

예수 역을 맡았던 짐 카비즐은 이번 후속작에서 하차했고, 핀란드 배우 야코 오토넨(35)이 새롭게 예수 역을 맡았다. 촬영은 10월부터 시작됐으며, 로마 카네지타 스튜디오와 이탈리아 남부 고대 도시 마테라(Matera) 등지에서 진행 중이다. 2004년 개봉한 패션 오브 더 크

라이스트는 전 세계에서 6억 1천만 달러를 벌어들여 독립영화 역사상 최대 흥행작 중 하나로 기록된 바 있다.

이미경 기자

## “미래 교회, 8가지 글로벌 변화 맞이할 것”



©Igor Omilae/ Unsplash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조셉 마테라 목사의 기고글인 ‘미래 교회를 변화시킬 8가지 글로벌 트렌드(8 global trends that will transform the future Church)’를 최근 게재했다.

마테라 목사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작가이자 컨설턴트, 신학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미국 사도 지도자 연합(The U.S. Coalition of Apostolic Leaders), 그리스도 연합(Christ Covenant Coalition) 등 여러 단체를 이끌고 있다.

마테라 목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교회는 사명과 선교, 그리고 방법론의 대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카이로스의 순간이라며, 앞으로 전 세계 교회가 직면할 8가지 흐름을 제시했다.

마테라 목사는 “지금의 변화는 교회가 문화 참여 방식과 제자 양육,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재정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전망은 다음과 같다.

1. 박해 지역 교회, ‘직장 선교’로 전환  
종교 박해가 심한 지역에서는 전통적

방식의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직장이 새로운 선교 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직장이 강단이 되고, 일터가 교회가 되고 있다”며, 기업 설립, 전략 분야 취업 등을 통해 관계 중심의 제자훈련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 세계 교회의 중심, ‘오순절 운동의 급성장’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독교 운동은 오순절카리스마 운동이며, 특히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 국가도시 변혁을 강조하는 사도적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3. ‘프랜차이즈 교회’는 쇠퇴할 것

마테라 박사는 기업형 조직 모델을 가진 대형교회들이 다음 세대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음 세대는 화려함보다 진정성과 공동체성을 원한다”며, 소비자 중심의 예배와 유명 목회자 중심 구조는 점차 설득력을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4. 오순절 교회, 전통 회복 움직임 강화

성령 운동을 중시하는 교회들이 전통적 신앙의 뿌리를 회복하는 현상이 나타

나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성령 체험과 교리적 깊이를 함께 추구하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며, 사도신경, 성찬, 예전, 교부 신학 등으로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5. 교회 신뢰의 기준, ‘투명한 거버넌스’

마테라 박사는 “도덕적 실패와 불안정 성 속에서 사람들은 화려한 예배보다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을 원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단독 지도자 중심이 아닌 다중 장로 체제, 재정 투명성, 윤리적 감독 구조가 필수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6. 도시 속 ‘현대 수도원 운동’ 부상

흔한 도시 문화에서 영성 회복을 꿈꾸는 젊은 세대 사이에 규칙적 기도, 금식, 공동체, 환대, 경건훈련을 중심으로

한 ‘도시 수도원 공동체’가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도피가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서의 영적 회복 운동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7. 기술 발전, 글로벌 협력 가속화

팬데믹 이후 대중화된 온라인 플랫폼은 전 세계 교회 간 협력의 문을 열었다. 마테라 박사는 “비행기 없이도 대륙 간 연합 사역과 기도 운동이 정례화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 8. AI 시대, 교회는 ‘신학적 충돌’에 대비해야

AI 발전은 설교 작성, 예배 음악 제작, 상담 등 교회의 기능을 대체할 가능성을 갖고 있어, 교회가 신학적 윤리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윤리뿐 아니라, 인간관(anthropology)과 영성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며 “편리함을 이유로 영적 현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마테라 박사는 “교회의 역할은 변화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이 흐름들은 우리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울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 이라크 총리- 미 시리아특사 회담.. 중동 평화와 확전 방지 논의

알 수다니 총리, 30일 방문한 톰 배릭 미 특사와 회담  
“중동 평화와 재건에 이라크가 건설적·핵심적 역할”

이라크의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총리가 11월 30일(현지시간) 바그다드를 방문

배릭 특사는 주 투르키예 미국 대사로 시리아 특사를 겸임하고 있다.

AFP,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은 앞으로 더 이상의 전쟁 확대를 피하고 외교

적 통로를 통해서 모든 분쟁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알수다니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 등 중동의 평화를 위한 중재역에 적극 협조할 의사를 밝혔다.

알수다니 총리실이 밝힌 공동성명에는 “앞으로 중동에서 미국과 이라크 두 나라가 더욱 협력과 경제 성장, 정치적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차미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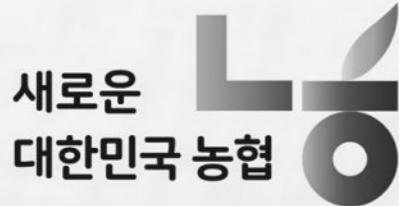
# 한국동서발전

2030년까지 탄소배출 45.9% 감축

205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69% 확대

2050년 탄소배출 Zero화 추진

EWP 한국동서발전



# 사계절맛 제철기부

## 사시사철 365일 기부가 제철입니다

사시사철 늘 맛있는 우리쌀로  
제철기부에 보답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  
**우리 제철 농축산물을 선택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지자체  
그리고 농협이 함께 합니다

NH 농협

### #쌀의 효능

쌀은 위의 기를 평하게 하고  
근육을 기르며 속을 따뜻히 해  
기운을 둡으며 번열을 제거한다.  
또한 소화기능을 가진  
허약체질의 환자에게  
식이 요법의 훌륭한 약재이다.

- 동의보감 쌀의 효능 중에서

###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담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농축산물 담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상당 농축산물 담례품 지급

###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 농축협  
※ 기부 한도액: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법인 불가)

## 정권 교체 속 혼선을 겪는 '한반도평화공존센터' 추진

북한인권센터에서 평화·공존·교류센터로 전환됐지만 정체성·예산 문제 여전

통일부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철회하고, 이를 대체하는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 변동과 목적 재설정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센터의 역할과 방향이 불명확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존의 북한 인권 기록과 교육 기능이 크게 축소된 반면, 남북 교류협력과 사회적 공론장이라는 광범위한 기능을 모두 담으려다 보니 정체성이 흐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가 공개한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공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각 세대와 계층이 직접 대화하고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공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취지가 제시됐다.

센터가 평화협력 중심으로 재편됐음에도, 계획안은 실향민과 북향민을 위한 공회적 기반 구축, 실향민·북향민 경험 공유 플랫폼 조성, 그리고 한반도 미래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국제사회 공론장 마련이다.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센터는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 기조를 반영하는 공간으로 재설정됐다.

계획안은 현재 분단의 고착화와 남북 간 단절이 심화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공존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민간단체기 업·학술기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상설

래 취지였던 인권 기록 기능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맞춰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센터가 남북 평화·공존·교류 인권이라는 여러 기능을 한꺼번에 강조하면서 뚜렷한 정체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 인권 기록 기능이 축소되면서 정책 초점이 흐려졌고, 평화·교류 기능이 강조되면서 기존 사업 연속성이 약화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96억 원 중 약 12억 5,800만 원이 설계비로 책정돼 있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이미 국립북한인권센터 설계 공모전이 진행돼 최우수안까

지 선정됐음에도 이를 폐기하고 다시 설계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예산 중복 문제가 제기된다.

통일부는 2026년 1~3월 건축 기본계획 수립, 6~7월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8월 설계 시작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예정대로 시작되기 위해서는 센터의 존재 목적과 운영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9일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립북한인권센터 예산 81억 7,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한반도평화공존센터 예산 32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통일부가 요청한 예산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국 기자

## 민주당, '1인1표제' 토론회 개최… 시작부터 충돌 속 당내 갈등 심화

정청래 대표 이행 논의 자리에서 고성·항의 이어져… 표 가치 개편을 둘러싼 내부 긴장 고조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온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당내에서 침해한 찬반 대립을 불러

온 사안인 만큼 행사 시작 직후부터 항의와 소란이 이어지며 논쟁의 운도가 한층 높아졌다.

조승래 사무총장 겸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단장

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청래 대표는 전당 대회 당시 1인1표제를 기반으로 한 당원 주권 강화를 약속하며 선출됐다"며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당내외 우려가 존재하지만, 중요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도부의 판단"이라며 선(先) 1인1표제 정착, 후(後) 전국 정당화 보완책 마련 등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1인1표제는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

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둘러싸고는 '표의 등가성' 문제를 넘어 당내 세력 구도와 맞물린 정치적 해석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대의원 투표에서는 폐쇄였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우세를 보이며 당선된 바 있어, 그가 제도 개편을 통해 내부 세력 기반을 강화하고 내년 지도부 연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당헌당규 개정 절차 역시 논란을 키운 요인이다. 지도부는 권리당원 86.8%가 찬성했다고 밝혔지만, 반대 측은 투표율이 16.8%에 불과하다며 '당원 민심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에 따라 일부 당원이 주말 동안 별도 반대 집회를 열었다.

현장 분위기는 시작부터 팽팽했다. 조사무총장의 발언이 이어지던 중 일부 당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진행을 방해했고, '정청래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대의원·전략지역 당원 역할 재정립 태스크포스(TF) 단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원관에서 열린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든 참석자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토론회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론을 통보하는 자리 아니나"며 반발의 뜻을 밝혔다.

공간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실제 참석자는 약 80석 규모의 현장 수용 인원을 크게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는 TF 소속 이해식 전략기획위원장과 김우영·윤종군 의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으며, 박지원 최고위원, 김영배 의원, 남영희 원외지역위원장 등도 참여해 각자의 입장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지도부가 1인1표

제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그리고 당내 반발을 어떻게 수렴·조정할지가 향후

당 운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줬다.

박용국 기자

##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꽉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진 피부 나이

10.6%

불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총 개선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페' 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따움 및 올리브영 매장

[\* 사용 7일 후, 인체 적응 시험 결과 [사용기준] 2023.01.25~2023.03.10 [사용내용] 성인 여성 30명 [사용기준] [주]글로벌여학연구센터]

## 경찰,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수사 속도… 자료 확보 및 관계자 조사 착수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최근 의혹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후 서울경찰청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종로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장경태 의원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며, 당시 현장에 있던 고소인과 동석자들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당시 출동일자를 확인한 결과, 장 의원에 대한 별도 수사는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향후 확보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고소인의 주장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필요하다면 무고죄 고소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무고죄 관련 접수는 없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6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정황, 관련자 진술, 확보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허위 사실과 음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용국 기자

## 민주당 최고위원 3인 동시 사퇴… 지방선거 앞두고 지도부 재편 본격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큰 변화를 맞았다.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이 1일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나며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나섰다. 세 사람 모두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던 만큼 이번 사퇴는 지방선거 구도가 공식화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70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강남 출마를 결심했던 당시를 언급하며 지역주의를 뛰어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만큼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당의 재집권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이날 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이 마지

막 최고위가 될 것 같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당내에서 논란이 지속된 '정치검찰' 프레임을 언급하며, 관련 사안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장을 내놨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완전한 내란 청산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고위원 직을 내려놓는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전천후 수륙양용 장갑차'라고 표현하며 앞으로도 당 지도부 외곽에서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김병주·한준호 최고위원은 각각 경기지사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이날 사퇴로 지방선거 경쟁 구도가 사실상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잇따른 사퇴와 잔류 선언으로 민주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대비 구도가 빠르게 정리되는 모양새다.

이나라 기자

# ISMS-P 인증 기업들에서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국내 정보보안 인증 제도 실효성 논란 가속

대형 플랫폼·통신·게임사 등 연쇄 사고…

인증은 '최소 기준'일 뿐, 실질적 보안 역량과는 괴리 드러나

◆인증 기업들의 연이은 대규모 유출 사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을 취득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 올해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으면서 정보보안 인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SK텔레콤, 예스24, 롯데카드, KT, 넷마블, 쿠팡 등 대형 기업들이 모두 ISMS-P 인증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해킹 및 내부 통제 실패로 인한 침해사고를 막지 못하면서 인증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쿠팡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쿠팡은 2021년과 2023년에 ISMS-P 인증을 간신히 취득했지만 최근 5

년간 총 네 차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2021년에는 쿠팡이 초 배달원 13만 5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같은 해 쿠팡 앱 검색창과 광고 배너 영역에서 회원 31만여 명의 이름과 주소 일부가 노출됐다. 2023년에는 판매자 전용 시스템 '윙(Wing)'에서 주문자·수취인 정보 2만 2000여 건이 노출됐다. 여기에 올해는 피해 규모가 3370만 명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유출 사고까지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고는 기본적인 내부 권한 관리가 부실했던 점이 원인으로 지목되며 논란을 키웠다. 쿠팡은 지난해 인증을 간신히 취득했지만 정보 유출이 시작된 이후 약 5개월이 지나서야 이상 징후를 발

견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890억 원의 보안 투자를 진행해 유통업계 최고 수준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퇴사 후

에도 주요 시스템 접근 권한을 유지하도록 방지한 점, 액세스 토큰 생성에 활용되는 서명키(인증키)의 유효 기간을 5~10년으로 설정한 채 간선폐기하지 않았던 점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장기 유효 인증키를 방지한 것은 단순한 직원 일탈이 아니라 조직 차원의 구조적 관리 부실"이라며 "쿠팡의 인증 체계 운영 전반에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강조했다.

◆인증의 한계와 반복되는 사고

ISMS-P 인증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를 통합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

리체계 16개 영역, 보호대책 64개 항목,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21개 등 총 101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기

업들이 실제 사이버 공격과 내부 통제 실

과 앞에서 반복적으로 사고를 겪으면서 인증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장관급 기관으로 승격된 2020년 이후 현재까지 ISMS-P 인증 기업 27곳에서 총 34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가 발생했다. 인증을 취득한 기업조차 보

안을 완전히 담보하지 못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인증 심사 방식 자체가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ISMS-P는 3년의 유효 기간 동안 매년 한

차례 사후 심사를 진행하는데, 이 심사

는 특정 시점의 보안 상태를 살펴보는 '스

냅샷 방식'이다. 원유재 충남대학교 교수는 "심사 기간은 보통 일주일에 불과하며, 이 기간만 보안 수준을 맞춰도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며 "해커들은 365일 24시간 침투 기회를 노려 공격하는 만큼 인증과 실제 위협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안 취약점은 연 1회 심사 시점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발

생한다"며 "인증은 최소한 갖춰야 할 절차적 요건을 확인하는 수준일 뿐이며, 이후 기업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취약점을 점검하고 관리하는지가 실질적 보안 역

량을 좌우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ISMS-P는 실시간 위협을 방지하는 장치가 아니라 법적절차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에 불과하다"며 "인증 취득을 '보안 안전지대'

로 오해해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

이 오히려 사고를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인증 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추진

정부는 잇따른 대규모 침해사고 이후 인증 제도의 개편 작업에 나섰다. 서면 중심 심사를 현장 중심 점검으로 전환하고, 종대한 결합 발견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모의해킹 훈련을 확대하고,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취약점 점검 체계를 구축해 보안 대응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ISMS-P 인증이 단순한 '면허증' 역할을 넘어서 실제 보안 체계의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의 지속적인 보안 관리와 책임 있는 투자, 그리고 제도의 현실 반영력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이나래 기자

## 정부, 한은-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추진 불안한 환율시장 안정 위한 대응 강화

외환수급 안정·기업 환전 동향 점검·해외투자

관리 강화로 시장 불확실성 완화에 주력

정부와 외환당국이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외환 시장 불안이 지속되자 한은은행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모 해외투자를 지속하는 국민연금의 달러 수요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시장의 안정적인 수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이 병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한국은행,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과 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고, 한은·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를 공식 개시했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은 기존에 연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체결

해 왔으며, 이는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외환스와프가 유지되면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매입할 때 필요한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어 시장 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달러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수출기업의 외환 보유 규모, 해외투자 현황, 환전 실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정책자금 등 지원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뉴 프레임워크 (New Framework)' 구축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정기적으로 3600조 원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대규모 해외투자가 외환시장 변동성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에 단기에 짐승될 경우 물가 상승과 실질소득 저하 등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새로운 관리체

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들의 외환 보유 및 환전 동향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일부 수출기업이 환율 추가 상승을 예상하며 환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달러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수출기업의 외환 보유 규모, 해외투자 현황, 환전 실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정책자금 등 지원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해외 주식 투자 증가로 개인 투자자의 해외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정부의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주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 절차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한편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6원 하락한 1,4670원에 개장해 소폭 안정세를 보였다. 정부의 외환시장 안정 조치와 금융당국의 대응이 향후 환율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나래 기자

## 경찰,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 수사 확대… 프린스그룹 연계 입건자 조사 본격화

해외 범죄조직 연루 정황 추적 강화…

FIU·국세청 공조, 유인 게시물 차단 등 다각적 대응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대폭 강화하며, 프린스그룹과 연계된 인물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외 범죄조직이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을 통해 관련 게시물을 233건이 삭제됐으며, 유사한 활동을 보이는 사이트 63곳에는 관리협조 요청 공문이 발송됐다. 해외 인신매매 조직이 SNS 메신저 등을 활용해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추가 피해 예방 조치가 병행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프린스그룹 관련 입건자는 현재 3명이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분석과 국세청 협조 요청을 통해 추가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81건 가운데 45건을 수사 중이고, 이 중 17건은 집중수사 TF로 이관돼 총 32건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28명을 검거했고 그중 12명을 구속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천대업 법원행정처장이

경찰은 해외취업을 미끼로 한 온라인 유인 방식이 피해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온라인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요청을 통해 관련 게시물을 233건이 삭제됐으며, 유사한 활동을 보이는 사이트 63곳에는 관리협조 요청 공문이 발송됐다. 해외 인신매매 조직이 SNS 메신저 등을 활용해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추가 피해 예방 조치가 병행되고 있다.

프린스그룹 외에도 후이원그룹과 관련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입건된 사람은 없지만 환전소 운영자와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직들의 자금 흐름과 피해자 이동 경로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천대업 법원행정처장이

제출한 고발 건을 토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 관련 의혹에 대해 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달 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됐으며,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자료 확보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노만석 전 경찰총장 직무대행을 고발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됐으며, 검사 이외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광역수사단이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는 해외 범죄조직의 활동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제 공조 확대, 금융 추적 강화, 온라인 단속 등 다각적인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외 고용 사기, 고액 아르바이트 유인, 불법 가두리 감금 등 범죄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초기 예방과 신속한 수사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나래 기자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행복큐브

행복공식

노동보험으로 일터안심

+

근로복지서비스로 생활안정

일터 안심

산재보험

재해보상  
재활치료

고용보험

보험가입  
피보험자 관리



생활 안정

가계 노후 안정

퇴직연금 기금  
임금채권 보장

복지증진

생활안정자금 대부  
여가문화, 직장어린이집

Comfort U & Be Easy

근로복지공단

# 분노하시는 하나님과 대리 속죄: 깨어 있는 신학이 거부하는 성경적 구속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 로빈 슈마허(사진)의 기고글인 “깨인” 속죄는 이미 깨진 속죄다(Woke atonement is broke atonement)를 최근 게재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오늘날 깨어 있는(woke) 신학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죄를 책망하고, 울법 위반에 대해 정의를 요구하는 하나님”은 깨어 있는 신학에선 꼼짝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깨어 있는 신학이 정확히 무엇일까? 명확한 합의된 정의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현대 사회 정의 가치, 특히 권리, 억압, 정체성, 포용, 트라우마의 관점에서 하나님, 죄, 구원, 정의, 복음을 해석하는 ‘진보적’ 기독교 접근 방식이다. 비록 이 운동이 최근 몇 년간 주춤했지만, 그 영향력은 여전히 기독교 세계에 남아 있다.

깨어 있는 신학은 신적 분노를 학대적이라고 보고, 도덕적 범주보다는 치료적 언어를 우선시하며, 인간을 용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 아니라 해방이 필요한 피해자로 본다.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신 대리 속죄 개념은 완전히 거부된다. 대신, 다양한 그리스도의 속죄 이론이 등장

하는데, 대표적으로 크리스투스 빅토르(Christus Victor), 예수께서 죄, 죽음, 악의 권세를 이긴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과 도덕적 영향 이론이 있다. 후자는 인간이 영적 질병에 걸려 있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시연이라고 본다. 즉, 인간이 도덕적 삶을 살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댄 포스터(Dan Foster)는 자신의 글 Why I Stopped Believing God Needed to Kill Someone to Forgive Me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가신 것은 하나님 마음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가신 것이다. 인간의 폭력, 종교적 권력, 정치적 두려움의 무게를 드러내고 그것을 보복 없이 흡수하셨다. 증오 앞에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 보복의 악순환을 깨고 계신 것이다.”

또 다른 글“What If God Didn’t Need Jesus to Die?”에서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신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이 폭력에 중독된 세상과 마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십자가는 대가(payment)가 아니라, 두려움 없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의 속죄(atonement)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의 죄로 인한 죄과 형벌의 고리를 끊는 수단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라”(롬 5:11) 그 결과, 스스로는 의롭지 않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된다. 이를 칭의(Justification)라 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에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라”(롬 5:18).

포스터는 “십자가는 대가가 아니었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십자가가 대가였음을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유행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13).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의 방식에 대해 다양 한 논쟁이 있어왔다. 도덕적 영향, Christus Victor 외에도, 보복, 몸값, 선택적 필요한 만족, 정부적, 신비적 속죄 이론 등이 있다.

성경적으로 정확하며 깨어 신학이 “우주적 폭력”이라 거부하는 이론은 형벌적 대리 속죄(Penal

Substitution) 이론이다. 하나님의 절대적 정의가 침해되었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신적 진노 우리에게 실제 죄책이 존재함, 화목과 속죄의 필요라는 성경적 기반 위에 있다.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William Lane Craig)는 Atonement and the Death of Christ에서 이렇게 정의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정당히 받아야 할 형벌을 자발적으로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훼손하지 않고도 죄를 용서하실 수 있도록 신적 정의의 요구를 만족시켰다.”

하지만 깨어 있는 신학 지지자들에게는 분노, 죄, 정의, 사랑이 재정의되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그들에게 분노는 곧 해악이고, 인간은 피해자이며 죄책이나 판단이 없다고 본다. 하나님의 율법은 치료적 윤리가 되고, 죄책은 트라우마로 치환되며, 포용이 거룩함을 암도하고, 폭력은 악으로 여겨져 십자가 사건은 속죄 사건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재정의)일 뿐이므로 진노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

그들이 성경을 읽고 구약, 요한계시록, 미태복음 24장을 이해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죄의 삶은 사망이다”(롬 6:23).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함께 이루셔서, 악을 파괴하면서도 우리를 파괴하지 않으실 수 있다. 형

벌적 대리 속죄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정의 뿐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객관적 화목, 복음의 역사적 성경적 기반,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에 대한 확신까지 훼손된다.

시몬 J. 키스테마커(Simon J. Kistemaker)는 고린도후서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평화로 순을 내밀며도, 왜 죄에 대한 분노를 극복하셨는지 의문이 있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무죄한 아들을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음을 설명한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우리 죄의 형벌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될 수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짊어지셨다”(갈 3:13).

결국, 깨어 있는 신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과 대리 속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자신들의 사회적 관점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상호 연관성을 오해한 것이다 — 진노와 사랑은 그중 일부일 뿐이다.

형벌적 대리 속죄가 올바른 성경적 해석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살전 1:10). 최승연 기자

## 카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나의 정체성 세웠다”

커리어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고백…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브라질 축구 스타 카카가 커리어의 정상에서가 아니라,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자신의 신앙이 깊어졌다고 고백했음을 최근 보도했다. 샤우바 도시 소로카비의 이그레자 파밀리아 교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카카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감춰졌던 불안과 부상, 끊임없는 비판 속에서 어떻게 신앙이 자신의 중심을 잡아주었는지 진술하게 됐다.

지난달 14일(현지시각) 개최된 모임에는 예배당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이들이 참석했다. 통로에 앉아야 할 만큼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가족 단위 참석자들이 몰렸다. 세계적인 선수였던 카카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한 열기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카카는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 신앙을 배워왔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은 것은 화려한 영광의 시간들이 아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18세에 겪은

중대한 경주 골절로 몇 달 동안 선수 생활을 멈춰야 했던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었다. 회복 이후 AC 밀란을 거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뒤에는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치지 못해 실망과 비판에 시달리며 자신의 존재 가치까지 흔들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시기 하나님에 주신 평안과 임재를 경험하며 흔들리던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다. 저는 세계 최고 선수도, 레알 마드리드의 죄악의 영입도 아니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경기력과 여론이 자신의 정체성을 좌우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CDI는 실패와 두려움이 물려올 때에도 설명할 수 있는 평안을 경험했다는 그의 고백은 이 자리의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고 밝혔다.

카카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며 “그 평안 속에서 트로피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불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간증 중 그는 자신이 신학 공부를 개인적으로



전 브라질 국가대표 축구 선수 카카. ©YouTube Screenshot

을 분명히 했다. 카카는 그가 출석하던 교회를 떠난 이후 어떤 교회에 출석하는지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다양한 교회 공동체에 조정을 받으며 기꺼이 저의 이야기를 나누며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카카는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신자들이 겪는 사회적·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신앙이 개인의 정체성을 불들어주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말씀 드리고 싶다. 저의 경험을 통해, 성취와 성공이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일은 결국 믿음의 뿌리에서 흘러나와야 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 “교회에 인공기를? 과연 목회자가 할 수 있는 말인가”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는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한국교회가 성경적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공동체의 위기와 관련해 “겉으로는 평온한 것 같아도 공동체가 사분오열되고 허무는 세력이 난무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만다”며 세계사와 성경의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과 가치관을 외면하고 사회적, 이념적, 문화적, 반기독교 정서를 따리기는 오늘의 현실을 지적하며, ‘침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줄고,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희망을 잃어가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한 목회자가 서울의 대형교회에 태극기가 걸린 것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소위 인공기를 계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인공기(人共旗)가 무엇인가? 북한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것이고, 반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훼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규정했다.

이어 해당 발언에 대해 “하필이면, 이 지구상에

서 공산주의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독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깃발을 교회에 매달아야 한다는 발상”이라며, 그 목회자가 “과연 하나님의 종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 인물이 오랫동안 ‘교회 개혁을 주장해 왔다며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상과 이념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행동이었던가?”라고 반문했다.

언론회는 “목회자의 말은 하늘의 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교리에 부합해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라고 볼 수 없다. 차라리 ‘하나님 종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인용하며 “벌써 배설물(排泄物)로 여겨야 할 것에 집착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더 이상 한국교회에서 반기독교적인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해당 목회자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넘어서 우주적인 관점으로 사랑하자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영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기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운용 기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자본권 예금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 유동 저율증 국유자산 관리  
• 노후 국 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  
• 기업구조혁신펀드  
• 캠코 선박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 교회사 속 도나투스 논쟁이란?



조덕영 박사  
창조신학연구소 소장

1) 도나투스파란?

(1) 주후 313년 북아프리카에서 보편교회로부터 갈라져 나간 뒤 698년 이슬람의 정복 때까지 존속한 분파  
(2) 즉 도나투스파는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교회의 분파 운동  
(3) 도나투스파는 자기들 시대의 보편교회가 박해 기간 중의 로마 정부에 대한 태도 때문에 더럽혀 졌다 주장  
(4) 이들은 참으로 거룩한 자들만이 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  
(5) 정치, 사회적으로 로마의 적절적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북아프리카 베르베르족의 지지를 받았다.  
(6) 여기에 신학적인 요소가 첨가되어 논쟁 발생

(7) 순교를 신앙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긴 도나투스파  
(8) 303년 대 박해 당시 성경 사본을 넘겨주어 불태우게 한 배교자들(tradidores)에 대해 카르타고의 교회가 엄중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반감을 가진 도나투스파

(9) 결국은 갈라서 자신들만이 참 교회 신자들이라 주장, 로마교회 소속 신자들에게 재세례를 주다.

2) 5세기 초반의 논쟁(어거스틴의 교회론에 의해 제기)

(1) 어거스틴(354-430)은 “교회에는 거룩한 자들과 죄인들이 함께 섞여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즉 교회에는 의로운 자들과 사악한 자들이 동일한 교회 내에 함께 존재하며, 어떤 인간도 교회로부터 사악한 자들을 뿌리뽑을 권위를 갖고 있지 않다.

(3) 어거스틴은 이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 가리지의 비유(마 13:24-31)를 인용한다. 이 비유에서는 주인이 어느 날 아침 밭에 도착해 보니, 곡식과 가리지가 나란히 자라고 있었다. 잡초만 제거하는 제초제

가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선뜻 가리지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다가는 어쩔수 없이 약간의 곡식도 상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곡식을 추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4) 어거스틴에 따르면, 가리지 비유는 교회에 적용되는 것이다. 교회는 곡식과 가리지, 즉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마지막 심판 날까지 교회 안에 함께 존재한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실 것이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행사하도록 허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회는 역사의 마지막까지 선인과 악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게 될 것이다.

(5) 어거스틴은 교회에 적용된 “가톨릭”(문자적으로는 “보편적” 또는 “전체의”)라는 의미)이라는 용어가 선인과 악인으로 혼합되어 구성된 교회의 상태를 기술해 준다고 주장.

(6) 이처럼 “도나투스파” 교회관과 “어거스틴파” 교회관은 서로 매우 달랐다. 이 같은 차이는 단지 순수한 신학적 중요성

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기능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다.

(7) 이 점은 막스 베버가 그의 선구적 저술인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의 정신”에서 명백히 밝혔으며, 에른스트 트뢸취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트뢸취에 따르면, 이러한 사회학적 차이는 “교회”와 “분파”的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8) 교회는 암도적으로 보수적인 조직 유형이며 어느 정도까지 세속적 질서를 받아들이고 대중을 지배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교회는 보편적이다. 즉 교회는 인간 생활을 전 영역을 막리하기를 원한다.

(9) 어거스틴에게 있어 기독교는 교회로 구현되는 반면, 도나투스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분파로 구현된다(모달리티와 소달리티 구조). 교회의 사회적 중요성을 보장해 준 것은 이처럼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의 교회론이었다.

(10) 이렇게 초대교회사 속 아프리카에서 파생된 급진적 분파 운동은 411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들을 로마교회로 수용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어거스틴의 강한 비판과 반달족의 북아프리카 강점(439-533) 속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이슬람의 정복(698) 이후 흡수 또는 소멸되었다.

3)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교회관

(1) 종교개혁 전후의 급진주의자들이 “단지 의로운 자들로만 구성되는 교회”라는 도나투스적 교회관을 발전시켰던 반면, 루터는 교회가 “혼합된” 집단이라는 교부 어거스틴의 교회관을 받아들인다.

(2) 도나투스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급진주의자들은 구성원들의 도덕적 안전을 요구한다. 교회와 세상은 빛과 어둠처럼 대립되어 있는 것이다.

(3) 루터는 교회 안에서 타락한 교인이 발견되는 것은 “생쥐의 배설물이 후추 열매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이나, 또는 가리지가 곡식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 생각했다.

(4) 이것은 어거스틴에 의해 인식되고 루터에 의해 배운 교회의 실제 모습들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관주도적 종교개혁은 교회의 확립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5) 반면 급진적 종교 개혁은 분파의 형성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 두 운동의 사회학적 차이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들의 각기 다른 이해를 반영해 주고 있다. 신학과 사회학은 이 점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6) 종교 개혁은 어거스틴의 교회론에 대한 어거스틴의 은총론의 승리를 나타낸다는 유명한 문구가 있다.

(7) 그렇다면 루터는 어떤 근거로 가톨릭 교회와 결별했을까? 그의 교회론에 있어 위에 언급된 측면은 참된 교회 안에도 항상 부파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합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거스틴의 교회론에 따르면 가톨릭 교회의 부파가 반드시 그것이 “거짓된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인가?

(8) 루터에 따르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바벨론 유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웁게 보전하셨다. 심지어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로부터도 위대한 그리스도교 유산은 계승되었다. 이렇게 루터는 어거스틴처럼 교회의 모달리티 구조를 인식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 아름다운 동행



최선 목사  
SBCM KOREA 대표

젊은 피가 끓어오르던 시절, 필자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1980년대 중반 학교 기숙사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하였는데 당면을 정하여 연탄불이 꺼지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럼에도 선후배들과 기숙하면서 미래를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서로 격려하면서 영적인 비전을 품고 지금까지 달려왔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개척하거나 기준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복음 전하는 소중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중 담임목사의 은퇴와 후임자 문제도 제법 심각하다. 이 문제의 귀감이 되는 사역자들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자 한다.

정 목사의 초임 목회는 정말 힘겨웠다. 왜냐하면 후임자로 부임한 교회가 불협화음이 있었던 시기에 부임하였기 때문이

다. 그는 3년 동안 교회문제와 선임자에 대한 허물과 실수들을 끼내지 않았다. 무조건 최대한 섬김으로 인내하며 극복해 나갔다.

누구든지 세월이 흐르면 노인이 되고 사역자에서 은퇴를 해야만 한다. 그 진실을 알았던 정 목사는 원로목사를 정성을 다해 섬겼다. 그리고 복음사역에 힘썼고 성도들과의 관계의 갈등 상황에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저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서서히 말씀에 순종하였고 27년 동안 사랑의 현장들이 있었다. 그러나 국력이 악한 우리나라에는 한일합방이 되어 일제 강점기 36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교회에 부임하고 선임 목회자의 자녀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후원하였다. 3년간 지원하고 그 이후는 정리하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었지만, 학위 없이 귀국하게 되면 너무 안타깝지 않겠나며 당회원들을 설득하여 끝까지 도움을 주었다. 또 심방 기간에 나온 현금을 따로 모았다가 부교역자들이 개척하거나 임지를 옮길 때 상당한 금액으로 후원하여 그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였다.

교단에서는 후임자와 선임자와의 아름다운 목회 동행을 통해 사역에 모범이 되는 사례를 찾아서 일년에 한 번 시상하고 있다.

14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 교회의 미담들이 많다. 그 중에 교회 개척과 사역의 과정을 겪었던 1세대 목회자들

양보하였다. 그런데 다음해에 상이 없어지는 바람에 수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상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었기에 개의치 않다고 한다.

금년 한국선교는 140년이 되었다. 청나라에서 선교를 하였던 존 로스가 이응찬 서상윤, 박홍준 등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150년이 된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아름다운 복음의 현장들이 있었다. 그러나 국력이 악한 우리나라에는 한일합방이 되어 일제 강점기 36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역사적인 위기와 문제들이 많았던 시절 이 세월이 흘러 은퇴를 했거나 앞두고 있다. 평생을 헌신한 귀한 사역에 박수와 환호를 보낸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특별한 사명을

따라서 일평생 영혼구원과 선교의 길을 걸었다. 한국교회 은퇴목회자들이 이제는 진정한 삶과 행복이 가능하기를 기원한다. 앞만 보고 목회사역에 충실히 임했던 그들이 이제는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를 소원한다. 그리고 영과 육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바란다.

아직도 한국교회에는 희망이 있다.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교회의 공동체에서 무엇보다 안정과 평화를 이룬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 정 목사는 27년의 담임사역 동안에 교회뿐만 아니라 전임 목회자가 소천 할 때까지 섬김과 예를 다하였다.

한국교회에 은퇴자와 후임자가 분쟁과 아픔이 없이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더욱 은혜로운 사역의 흔적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한다. 그러한 삶과 사역이 한국교회 현장에서 꽂피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신앙의 동역자들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멋진 인생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집중하는 자가 뜻을 이룹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이 일 저 일 손대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깊이 깊이 반성한 것이 이 원리를 어기며 살아온 점입니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너무 많은 일에 손을 뻗치는 과오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으니 이제부터나마 집중해 보자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집중이 아니라 동두천 드레마을에서 영성 수련과 바람직한 공동체 세우는 일에 집중 하자는 다짐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반복의 원리입니다. Principle of repetition이라 합니다.

나는 성경 읽기도 로마서면 로마서, 이사야서면 이사야서를 100번 반복하여 읽으라며 권합니다. 100번을 반복할 때 문리가 트인다고 일러 줍니다. 양치기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의 돌팔매 솜씨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돌보며 끊임없는 반복에서 그런 솜씨가 길러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산만하고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려면 날마다 기도와 성경 읽기에 집중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첫째가 집중의 원리입니다. Principle of concentration이라 부릅니다.

SAMJIN 삼진제약

발열

인후통

몸살

##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sup>®</sup> 쿨다운 정



30정

# 창세기의 하나님과 유신 진화론의 창조자는 동일 존재인가?(1)

허정윤 박사  
알파와 오메가  
창조론 연구소 대표



## 창조론과 유신 진화론의 토론 후기 및 미결 쟁점 검토

얼마 전에 국내 창조론자 단체 카톨릭에서 창조론자와 유신 진화론자 사이에 토론이 있었다. 이 글은 그 토론과 이어서 벌어진 장외 논쟁의 진행 상황을 되돌아보는 후기이다. 미결 쟁점인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 기독교인들의 숙의를 구하기 위해 쓴 것이다. 이 글에서 토론에 참여했던 양측의 당사자는 창씨(창조론자)와 진씨(유신 진화론자)로 약칭 표시하지만, 이어서 벌어진 장외 논쟁의 당사자는 나중에 실명을 밝힐 것이다.

기독교 안에서 창·진 토론은 예의 그렇듯이 신앙의 토대가 “성경적이지 않다”와 “과학적이지 않다”의 시비(是非)로 시작된다. 그날의 토론에서도 그랬다. 그 토론에서 주고 받은 질문과 답변의 공방, 그리고 마지막에 AI까지 동원하여 주고받은 토론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했지만, 이 글은 카톨릭 토론 내용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카톨릭 토론의 끝에 관리자가 토론 내용을 ‘가리기’ 처리를 하였으므로 정확한 기록을

다시 볼 수가 없어서 기억에 의존해서 썼기 때문이다. 디펜스럽게도 AI를 사용하여 주고받은 토론 내용은 컴퓨터에 복사본이 저장되어 있어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었다.

카톨릭 토론 후 벌어진 장외 논쟁은 전화로 주고받은 것이며, 토론의 ‘돌연변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휴대폰에 자동 저장된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장외 논쟁의 주제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정체성에 관련된 조직신학의 기본적 문제이나, 결국 미결 쟁점으로 남았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모든 생물을 말씀으로, 또 종류별로, 그리고 인간을 특별한 목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유신 진화론에서 주장하듯이 하나님의 단세포 생물을 진화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인간도 그것에서 진화되도록 창조했다는 창조자가 동일한 존재일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이 쟁점은 기독교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성경 해석의 범주를 정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생물을 종류별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나, 유신 진화론에서는 단세포 생물인 LUCA만이 창조되었으며, 그것이 각종 단세포 생물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인간도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유신 진화론처럼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 다른 창조 방법을 사용한 창조자가 동일한 존재인가? 아니면, 각각 다른 존재인가?

| 카톨릭 토론 내용

**#1장면: 진화론은 과학인가?**  
진씨: 진화론은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론이므로 하나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하였음을 믿어야 한다는 취지로 유신 진화론을옹호하는 주장였다.

창씨: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니라, 다윈이 육종업자의 품종개량 작업에 의해 생물의 형태가 변화되는 현상을 보고, 자연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관찰한 것에 근거하여 이를 확대 추론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유신 진화론은 다윈주의자들이 다윈의 추론에 추론을 누적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반론하면서 기독교인은 그런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반론했다.

**#2장면: 창조과학과 오랜 지구론:**

진씨: (창씨에게) 창조과학자나? 고 물었다.  
창씨: 오랜 우주론을 믿으므로 창조과학자가 아닌 창조론자라고 응답했다.

**#3장면: DNA 변이에 의한 진화와 돌연변이:**  
진씨: 생물의 진화는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이 현대 유전학과 분자생물학 등으로 입증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창씨: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의 종류들 (kinds: 종 species보다는 폭넓게 해석한다) 안에서 다양성의 발현(소진화, 미시진화)은 사실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가는 대진화(거시 진화)는 불가하다고 믿으며, 입증하는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진화론자들이 대진화의 동력으로 주장하는 돌연변이는 불구나 질병으로 귀결될 뿐임을

강조했다.

**#4장면: 인류 진화의 화석 증거:**

진씨: 고생물학에서 발견된 화석과 유전학적 검증으로 인류의 진화 계통이 단계별로 입증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현대 유전학은 DNA 변이에 의한 진화의 속도까지 계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창씨: 고인류의 진화 단계를 화석의 형태로 배열하여 설명하는 그림을 보면, 그런 단계별 형태는 현대인의 뼈로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화석의 대물 시기와 진화의 각 단계에 소요된 시간과 유전학적 검증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진화의 속도를 계산하는 공식 자체가 추론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5장면: 루시(Lucy)와 루카(LUCA):**

창씨: 루시를 믿느냐고 질문했다.  
진씨: 루시는 인류의 조상이라고 답하면서 최초의 생물인 루카에서 시작되는 진화의 계통도가 과학적으로 확립되어 있다는 취지로 응답했다.

창씨: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진화의 계통에는 공간이 많고, 그 공간을 추론으로 메우고 있는 것이므로 대진화는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하나님이 종류별로 창조하신 생물의 자손들이 다양하게 변성하여 오늘날의 생물 계를 형성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성경적이라고 주장했다.

**#6장면: 진화적 방법의 창조가 성경적인가?**

진씨: 성경에 없다고 하나님이 생물을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왜 불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취지로 반문했다.

창씨: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기독교인이라면, 왜 굳이 성경에 없는 방법으로 창조했다고 믿어야 하느냐?는 취지로 재반문했다.

진씨: 진화의 계통도는 과학이 입증한 생물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창씨: 그것은 추론을 근거해서 만든 것이므로 과학이 아니고, 오늘날의 생물계를 형성한 것은 하나님이 종류별로 창조하신 생물들이 다양하게 변성해서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7장면: 진화적 방법을 사용한 창조자는 사탄이 아닌가?**

진씨: 현대문명을 이룬 과학의 업적을 나열하고, 그런 과학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진화론은 과학이므로 믿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창씨: 기독교는 창세기에서 생물을 종류별로 창조하신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진화의 방법으로 창조했다는 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유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의 방법으로 생물을 창조했다는 신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으로 본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계속〉

## 왜 성경을 인간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가? (2)

김정부 목사  
찬송하는교회 담임  
한국교회법학회 이사

### 2. 죄와 사망과 마귀의 지배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의 생각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성경적 진리를 왜곡하고 대체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2-1. 창세기 6: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강해주석:** 타락 후 인간의 생각의 근원 자체가 악으로 기울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단순한 연약함이 아닌 죄악의 산물입니다.

2-2. 로마서 5:12 “그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강해주석:** 한 사람(아담)의 불순종(선악과 사

건)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이는 우리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3. 하브리서 2:14-15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나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멀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생에 마다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십니다.”

◆**강해주석:** 마귀는 죽음의 권세를 잡아 인간들을 종노릇하게 하는데, 이는 사망으로 이끄는 육신의 생각의 근본적인 배후입니다.

2-4. 고린도후서 10:5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강해주석:** 인간의 편향된 지식과 자기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이론’이 될 수 있으며, 성경적 깨달음을 이러한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과정입니다.

2-5. 애비소서 4:17-18 “그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지각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강해주석:** ‘허망한 마음과 ‘어두워진 지각’은 성경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죄악된 생각의 상태를 나타내며,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상태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지식과 사상이 진리를 대적하는 방식과 그 결과에 대해 다룬는 구절들입니다.**

2-6. 애비소서 2: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나이었더니”

◆**강해주석:** 육체의 육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후의 생각처럼 죄의 지배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합니다.

2-7. 애비소서 1:14-15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육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육심이 양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강해주석:** 죄와 사망의 과정은 자기 육심에서

시작됩니다. 이 자기 육심은 편향된 선택과 확증 편향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2-8. 요한일서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육과 안목의 정육과 이생의 자랑이나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강해주석:** 세상적인 생각을 지배하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이 ‘자랑’은 자기가 가진 지식에 대한 교만한 의존으로 나타나 성경적 깨달음을 방해합니다.

2-6. 골로새서 2: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강해주석:** 인간적인 지식(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의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깨달음과 반대됩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을 절대화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2-7. 애비소서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강해주석:** 악한 영들(마귀의 자비)이 세상의 사상과 사고방식을 통해 우리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2-8. 잠언 16:25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강해주석:** 인간의 자신 있는 생각이나 양심이 인도하는 길일지도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면 결국 사망으로 이끌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절대 기준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2-9. 디도서 1:15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강해주석:** 마음과 양심이 죄로 더러워진 상태에서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여 이해하게 됩니다. 깨달음의 울바름은 내면의 순결과 직결됩니다.

2-10. 로마서 8: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도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강해주석:**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행실을 성령(영)의 능력으로 제어하고 죽이는 영적 투쟁이 생기면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계속〉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기 놓다

##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꽂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 오늘날, 왜 코메니우스와 모라비안 교회를 말하게 되는가?(2)

정일웅 박사  
코메니우스연구소 소장  
웨이크신학원 석좌교수



여러분, 15세기 중엽에 형제 연합교회가 기독 구원 신앙의 본질이 믿음, 소망, 사랑임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후스의 개혁 정신을 잘 따르고 있었을 때, 1517년 10월 31일 16세기 초엽, 루터는 후스의 교회개혁 아래, 독일에서 또다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중세가톨릭교회가 구원 신앙의 진리를 여전히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세가톨릭 교회는 신앙의 본질인 믿음 소망, 사랑은 형식적으로 만들 어놓고 그 가운데서 사랑의 중요성만 강조하여 소위 선행 구원론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면죄부 판매 사업은 구원론에 왜곡의 결정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고 한 고전1313절 말씀과,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는 갈5:6절의 말씀을 근거로, 사랑이 믿음의 근원임을 주장한 그 당시 스콜라주의자들에 대항하여 루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구원)는 오직 믿음(sola fide)으로만 얻게 되는 정의의 은혜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생각하면 루터의 종교개혁은 후스와 마찬가지로 구원 신앙의 본질을 깨우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전통적으로 이어온 믿음, 소망, 사랑의 구원 신앙 본질과 그가 주장한

이신칭의 구원론 사이에서 적잖은 선택적 고민을 했으며, 마침내 믿음, 소망, 사랑은 노력하여 얻는 인간의 공로적 행위(meritorium)로 판단하여(오직의 영향으로) 외면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sola fide)이란 이신칭의를 강조하였습니다(참고, Thomas Soeding의 연구 Trias, Glaube, Hoffnung, Liebe bei Paulus 1992). 물론 동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인 쪽방글리, 멜란히톤, 부처, 칼빈 등의 협력과 지지로 루터의 종교개혁은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후에는 이신칭의 구원론에서 일치하고 있었지만, 다른 교리적 해석의 차이들로 인한 논쟁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분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1519년에 이르러, 100년 먼저 보헤미아-모라비아에서 교회개혁을 부르짖다가 순교한 후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의 개혁 정신을 따랐던 형제 연합교회가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형제 연합교회의 신학자 루카스(Lukas)는 스스로 사절단을 이끌고 비텐베르그를 방문하여 루터를 지지하였고, 얼마간 양 교회는 프로테스탄트로서 동질성을 확인하면서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루카스와 루터와 멜란히톤이 다 천국 간 후, 이들 형제 연합교회와 루터교회 사이에 교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1555년 루터교회와 가톨릭교회 사이에 맺은 “아우스부르크 평화화의 조약” 때문이었는데, 거기 명시된 cuius regio, eius religio란 라틴어 문구가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통치자의 영역에는 통치자의 종교를 “이란 뜻으로, 종교의 선택권이 지역 통치자(영주)에게 부여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은 루터파 교회로서는 다수

를 차지한 유럽의 가톨릭 환경에서 존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했지만, 이 조약은 정작 가톨릭 황제가 통치하던 보헤미아의 형제 연합교회에는 참으로 부당한 것이었고, 엄청난 신앙 박해를 받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결국 서로의 교제는 단절되었고, 형제 연합교회는 때마침 프로테스탄트 연합을 강조한 제네바의 칼빈을 지지하면서, 독일 개혁파교회와 교제하였습니다. 칼빈의 신학에서 확인된 여러 일치 점들, 특히 장로제도의 도입과 성찬의 성령 임재설, 성경 말씀의 철저한 신뢰와 순종은 이미 형제 연합교회가 실천하고 있던 것들로, 오늘날 역사 연구는 형제 연합교회야말로 칼빈주의 이전의 칼빈주의자들이었음을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기독교 구원 신앙의 본질인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17세기 형제 연합교회의 대를 이어 구원 신앙의 본질을 가장 성경적 구원론으로 체계화해 준 인물은 역시 얀 아모스 코메니우스(J.A.Comenius, 1592-1670)였습니다. 그는 형제 연합교회가 독일 개혁파교회와 교제한 후, 개혁 신학(칼빈주의) 교육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독일 개혁파교회가 설립한 헤어보른과 하이델베르그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였고, 1616년 형제 연합교회 목사로 안수받았으며, 1618년 풀네에 있는 교회와 학교의 책임자로 목양 사역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코메니우스의 그곳 사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에 보헤미아의 수도 프라하에서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30년 종교전쟁(1618-1648)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발단은 프로테스탄트(후스와 루터와 칼빈파)를 지지하던 독일과 보헤미아의 제후들이 연합하여 가톨릭 편에 서 있는 형제를 내쫓고, 그들 편의 형제(독일 팔츠 지역의 성주 프리드리히)를 세우려는 정치적 봉기 때문이었습니다(1618-21). 그 봉기는 2년간의 전쟁 끝에 프로테스탄트가 패하게 되었고, 정치권력을 다시 잡은 가톨릭 형제 페르디난트(합스부르크 가문)는 보헤미아에 있는 모든 프로테스탄트에게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강요하였으며, 명령 거절은 재산 몰수였습니다(1627). 코메니우스는 형제 연합교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폴란드 리사(레스노)로 망명하게 됩니다(1628). 거기서 코메니우스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을 꿈꾸면서 여러 책자를 출판하였고, 그 것들이 유럽 여러 나라에 알려지면서 교육학자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계속)

## 社 說

### 대북정책, 김정은 아닌 北주민에 맞춰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얼마 전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해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민간 차원의 대화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한교총 김종혁 대표회장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긍정적이고 충격적인 정책은 피할 것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장관이 교계 기관을 예방하는 건 보통 얼굴을 알리려는 의례적인 데 있지만 취임한 지 석 달이 더 지나서 교계를 찾은 건 아무래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교계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하려는 목적이 더 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 여러 가지 선행적인 대북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따른 기독교계의 우려 목소리를 의식했다는 뜻일 거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회장은 “아육강식의 국제 질서에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면 국가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이라도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긍정적이며 충격적인 정책은 도려 국민의 반감을 사기 쉬우니,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차근차근 접근하시기 바랍니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김 대표회장의 말은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앞서 안보를 튼튼히 하는 등 안정적인 기조 토대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 3가지 원칙은 강력한 억지력과 틈틈한 국방, 흡수통일 반대, 대북 화해 협력 이 세 가지”라며 “이재명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971년 박정희 정권 시절 남북직접상회담 아래 최초로 대화, 교류, 심지어 전화까지 불통 상태”라며 “교전 중인 적국 간에도 통신은 하는데 현 상태는 비정상적이고 불안정하며 위험하다”는 말로 현 남북관계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급격히 경색된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수 정권에서 얼음장처럼 식은 남북관계를 진보 정권이 화해와 협력을 기조로 녹이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이나 비난하는 어조는 피했다. 하지만 현 남북관계가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꼬였다는 걸 은연중에 드러냈다. 이걸 현 정부가 뜯어고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으니 기독교계가 지지와 협력을 보내달라는 의도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이전 윤석열 정부가 유지해온 대북정책을 완전히 끌어내렸다. 대북 전단지 살포를 전면 중지시키고, 국정원이 지난 50년간 해온 대북방송도 완전히 끊었다. 남북관계 경색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의 하나로 현 정부가 선택한 방법이지

만 정작 이런 선행적 조치들이 대북관계 개선에 기여적 인 변화와 효과로 나타나는 조짐은 그 어디에도 없다.

대북 전단지 살포는 민간단체가 북한 주민에게 바깥 세상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 중 하나였다. 전단지 안에 김씨 일가의 폭정을 알리는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 있어 북한 김여정이 “전단지 금지법이라도 만들라”고 하는 등 온갖 폭언과 위협을 가했다. 그 후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전단지금지법’이 제정됐으나 현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론 내리면서 재개됐다. 이걸 현 정부 들어 다시 강제하면서 국민의 권리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게다.

국정원이 지난 50년간 이어온 대북 라디오방송과 TV 방송 또한 북한 주민이 외부에서 정보를 얻을 거의 유일한 통로였다. 이걸 정부가 중단한 것에 대해 교계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온 건 어찌면 당연한 반응이다.

대북방송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거나 김정은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 외부 세계의 소식을 전해주고, 특히 날씨 등 북한 주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편성돼 있다. 이것마저 중단시킨 건 북한 김정은 체제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압정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한 것이어서 남북관계 개선에 실의이 없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기자간담회에서 대북방송에 대해 “쓸데없다. 요즘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데 그걸 왜 하냐”고 비판한 게 화제다. 첨단 IT 시대에 주먹구구식 방송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미안데 북한 주민이 인터넷을 못 쓰는 건 상식이란 점에서 대통령의 현실 의식에 문제점을 드러낸 거다.

북한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은 김씨 일가와 극소수의 특권층뿐이다. 일반 주민들은 외부 정보망에 아예 접속하지 못하게 돼 있다. 북한에도 인터넷이 있으나 그건 북한 내부망일 뿐 외부와는 완전히 차단돼 있어 유입되는 정보가 전무한 게 사실이다.

우리의 대북방송이 북한 주민들에게 한 줄기 빛이었던 건 그런 북한의 폐쇄적인 현실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도 차마 대북방송만은 끄지 않았던 거다.

“인터넷을 뒤지면 다 나오는다”는 이 대통령의 말은 적어도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꿈같은 일이다. 이걸 잘 몰라서 대통령이 대북방송 중단 지시를 내린 거라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방송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알고도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진의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하기 바란다.

국내에 들어온 상당수의 탈북민이 대북방송과 전단지 등을 통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한다. 이처럼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 김정은 체제가 아닌 북한 주민에게 맞춰져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다.

## 든든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1인 가구 비중 36% '역대 최고'…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

보건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 발간  
65세 이상 인구 첫 1천만 돌파… 독거가구 32.8%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36%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이었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4'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였다. 전체

(2229만4000가구) 대비 36.1%에 달하는 수준이다.

1인 가구 비중은 2015년 27.2%에서 2020년 31.7%로 증가한 뒤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며 매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1년 33.4% ▲2022년 34.5% ▲2023년 35.5% ▲2024

년 36.1%다. 복지부는 이 같은 추이가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 2042년 1인 가구가 99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인구 대비 20.1%, 인구 5명당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노인 가구 중 노인 독거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32.8%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난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23만4506명이었고, 결혼 이민자는 18만727명이었다.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 1127명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급감하다 2023년 196명으로 반등한 데 이어 최근 5년 새 최다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어린이집은 2만7387 개소로, 2013년(4만3770개소)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수는

2020년 3만5352개소에서 ▲2021년 3만 3246개소 ▲2022년 3만923개소 ▲2023년 2만8954개소 ▲2024년 2만7387개소로 감소를 거듭하고 있다.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24.5명, 고등학교 23.4명이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처음으로 80%를 넘겼고, 1인당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44만2000원, 중학교 49만원, 고등학교 52만원 등이다.

아울러 지난해 의사 수는 10만9274명으로 전년(11만4699명) 대비 5425명 줄었다.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의사 진료를 받은 건수는 18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OECD 평균(6.7건)과 비교하면 2.7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국가 사회복지·보건분야 지출은 237조 6000억원으로 국가 총지출의 36.2%를 차지했다.

서다은 기자

## "사진 보낼래?" 온라인 그루밍 서울시, AI 탐지·차단 기술 최초 개발

SNS·오픈채팅 등서  
그루밍 시도 탐지

서울시가 온라인 그루밍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서울 안심아이(eye)'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SNS, 오픈채팅 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접근해 관심을 사고 친밀감을 형성한 뒤 경계심이 흐려진 상대에게 성적 대화를 유도하거나 학대·착취하는 성범죄 행위다.

서울 안심아이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유인과 성 착취 시도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탐지한다. 위험 징후 포착 즉시 피해 지원 기관에 긴급 알림을 전송하면 기관이 개입해 피해 확산을 초기에 차단한다.

대화 속에서 "사진 보낼래?", "영상통화 할까?", "집이 싫으면 가출해 보삼?", "용돈 받고 뭐 원하는 거 해주고 그러는 거야"와 같이 표현을 감지한다.

단순히 특정 단어를 감지하는 수준을 넘어 멀티모달 지원을 경량화된 언어모델(sLLM, small Large Language Model)을 결합해 다양한 은어·축약어·연속된 대화 맥락까지 함께 분석하도록 설계된다.

피해 지원 기관(다시함께상담센터 등)은 피해 확산 방지와 예방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 상담사를 배정해 초기 대처법을 안내하고 상담과 수사 지원까지 한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온라인 그루밍을 시도하는 계정에는 신고·고발을 병행한다.

한편 시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의해 실시한 온라인 그루밍 설문 조사(서울 시내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 총 2316명 대상, 2025년)에 따르면 응

답자의 19%가 '온라인에서 말 걸기, 선물 제공, 성적 대화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접근을 경험했다.

접근 경로는 SNS, 일대일 채팅, 오픈채팅, 게임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접근한 사람의 특징으로는 '온라인에서 처음 만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35.5%로 가장 많았고 '친구·선후배 등의 또래'가 34.2%였다.

이야기를 나눈 온라인 플랫폼은 'SNS(엑스·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가 33.3%로 가장 많았다. 일대일 채팅방, 오픈채팅방이 31.1%, 게임이 15.6%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대화나 만남을 제안 받거나 돈·선물 등 대가를 제공하겠다는 '적극적 유인' 형태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11.7%(270명)였다.

이번 '적극적 유인'에 대답한 적이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16.7%로 나타났다. 그

중 오픈라인에서 실제로 만난 경험이 있

는 아동·청소년은 28.9%였다. 직접 만난 이유로는 '친절하고 말이 잘 통해서 친구가 되거나 사귀게 됨'이라는 응답이 58.3%로 가장 높았다.

적극적 유인에 대답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 중 40%의 응답자는 그것이 피해라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나이나 신분 등의 개인정보를 속였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갈수록 진화하면서 최근 몇 년간 온라인 그루밍을 매개로 한 성 착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상당수가 온라인 그루밍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갈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다은 기자

## 삼성, 연말 이웃돕기 나눔 27년 지속… 23개사 성금 참여

임직원 기부 포함 500억 성금

삼성은 1일 서울 종로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회관에서 김병준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회장, 장석훈 삼성사회공헌업무

총괄 사장, 서준영·박종찬 삼성전자 노사협의회 사원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이웃사랑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1999년 처음 연말 성금을 기탁한 이

후 삼성은 올해까지 27년 동안 연말 이

웃돕기 나눔을 지속해 왔다.

삼성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200억원씩, 2011년은 300억원, 2012년부터는 500억원씩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삼성은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도 지

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성금을 마련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날 삼성의

꾸준한 기여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다.

올해 성금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물산, 삼성E&A, 제일기획, 에스원 등 총 23개 관계사가 참여해 마련했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도 성금에 포함됐다. 성금은 청소년 교육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사용된다.

김병준 회장은 "올해도 의미 있는 나

눔을 이어가는 삼성에 감사를 전한다"

며 "특히 삼성의 사회공헌 활동들은 청년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석훈 사장은 "경영환경이 뉴욕지

않지만 삼성은 사회와 함께 성장한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고 있다"

며 "연말 성금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삼성 임직원, 한 달간 2026년 기부약정 캠페인 참여

삼성 임직원들은 11월 한 달간 진행된 '기부약정 캠페인'을 통해 각자가 2026년에 참여할 CSR 프로그램과 기부액을 선택했다.

기부 약정액은 내년부터 매월 급여에서 자동 기부되며 회사도 임직원이 기부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 기부한다. 임직원들은 금전 기부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삼성은 유니세프, 푸른나무재단,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등 7개 NGO 기관과 협력해 제작한 CSR 달력 33면부를 임직원에게 지급한다.

달력에는 삼성이 NGO들과 함께 운영 중인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 ▲청소년 학습지원 ▲학교폭력 예방·치료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등 주요 CSR 활동들의 사진이 담겼다.

삼성은 임직원들이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나눔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2019년부터 NGO와 함께 달력을 제작해왔다.

달력 구매에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삼성물산, 삼성E&A, 제일기획, 에스원 등 14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이루리 기자

## 서울 중장년 50명 대상 호텔시설·보안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와 실무 중심 교육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과 서울중장년내일센터가 관광·호텔 분야 시설보안 전문 인재를 키우기 위해 서울 중구청과 함께 '호텔 시설·보안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관광 분야 전문가가 자문 회의와 호텔 인사 담당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인력 수요를 반영해 설계됐다. 호텔

취업 역량 강화 교육 ▲2~3일차 호텔 직무 소양 교육과 소방·전기·안전 기초 교육 ▲4일차 호텔 현장실습 ▲5일차 구인 행사 순으로 진행해 취업까지 연계한다.

서울중장년내일센터는 이번 과정 외에도 지역 전략산업인 관광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호텔종사자 양성과정', '여성 호텔리어 양성과정', '호텔 객실부 전문 인력 양성과정' 등을 진행해 297명이 참여한 바 있다.

이루리 기자

교회와 선교를 잇는 '행복한 동행'이 전국 지역 파트너를 찾습니다



### 주요 유료 서비스

부모님 안부/건강, 맞벌이 육아 동행  
어르신 정서 지원/치매 예방  
반려동물 산책&장례  
법률/병원 입·퇴원 동행  
생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

### 모집 대상

동행매니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자 및 사명감 있는  
교회/단체 환경!

전국 지부, 센터 문의

1544-1322

010-7546-7933

| 동행매니저와 노인돌봄생활지원사,  
기타 민간자격증 자체 교육 후 발급 가능합니다

행복한  
동행

## 심리적 상담 치유 (예언의 말씀)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박힌 고질병을 혼자 고심하지 말고 (한문으로)  
“이름과 나이”만 알려 주시면 고목 나무에 꽃이 피어 인생길을 밝게 살 수 있도록 치유하게 됩니다. 성격, 사명, 출세, 성공, 실패, 건강, 병약, 단명, 장수, 가정, 자녀, 부모, 부부의 금실, 이혼, 위급한 사고, 말씀으로 기도 제목을 밝히 치유를 받게 됩니다. 나는 몸이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고백 하기를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게 된다”고 했다. 고전4:10

송백 목사 010-3809-6487  
충북 단양군 대강면 두음 6길 4

##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5. 토지: 2,756m<sup>2</sup>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sup>2</sup> (139.75평) + a(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낯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 임만재 목사 초청 부흥세미나



교회여,  
다시 부흥하자!

임만재 목사  
(충주 용원교회 원로)

- ▶ 저서: 〈날도둑 날강도가 많은 교회〉 〈십일조 안내면 받으려 가자〉 외 다수
- ▶ 장신대학원(82기), 목회학박사(맥코믹5기)  
목사·장로·권사 제직 세미나 강사  
사경회 강사, 인문학 강사, 유튜버(임만재TV)  
총회부흥회 강사(전)

연락처 : 010-9069-3044, 010-3177-6999  
[lmj132@hanmail.net](mailto:lmj132@hanmail.net)

〈집회교회〉  
창천교회 세계로금란감리교회 강남중앙교회 하늘비전교회  
영등포교회 포도원교회 포함장성교회 오천교회 구로문교회  
복대교회 청북교회 대성교회 안동교회 중문교회 인천시연합  
안동시연합 청주시연합 제천시연합 각종 세미나 등 500회 이상

##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교회담보대출: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 교회: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 교회 예배 관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셉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031-439-5555 FAX: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hanmail.net](mailto:moon4903012@hanmail.net)

## 교회성장을 위한 전국순회집회

-교회 성장의 갈급한 목회자와 교회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 위한 전국 순회 집회-

지 역	일 시	장 소	대표연락처
대전	25.12.12(금)-13(토)	대전 참소망교회(담임 박주에목사) 주소: 대전 중구 수침로 111번길 33	강성은 목사 010-2211.7139
서울 경인 강원	26.01.19(월)-20(화)	인천 김단비전교회(담임 박종민목사) 주소: 인천 서구 완정로 188번길 2길 12	이수화 목사 010.9407.7226
부산 울산 경산	26.01.22(목)-23(금)	부산 향기로운교회(담임 김양덕목사) 주소: 부산 사하구 윤공단로 14번길 62(다대동)	김양덕 목사 010.9155.0191
서부지역	26.01.26(월)-27(화)	태안 예일교회(담임 김순남목사) 주소: 충남 태안군 태안읍 셀굴 4길 29	김순남 목사 010.6477.2827
충북 청주	26.01.30(금)-31(토)	청주총신교회(담임 염광섭목사) 주소: 청주시 청원구 윤봉로 202번길 69	염광섭 목사 010.4410.9115
전북 광주	26.03.05(목)-06(금)	완주 에멘교회(담임 양정옥목사) 주소: 전북 완주군 비봉면 다리설길 31	양정옥 목사 010.6542.2661
제주	26.03.20(금)-21(토)	제주 글로리아교회(담임 김홍석목사) 주소: 제주시 광양11길 2, 4층	이승우 목사 010.9969.6875
천안 충남 경기	26.04.13(월)-14(화)	천안 회복교회(담임 이종익목사) 주소: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 1길 3-12	박진우 목사 010.6314.3783
강사소개	양정옥 목사	사)에장합동개혁총회장 / 성장교회예식법	
	곽윤관 목사	사)에장합동개혁직전총회장 / 행복목회사역	
	한영동 목사	사)에장합동개혁증경총회장 / 목회교정사관학교/120명 자립교회	
	정해숙 목사	불교인 전도1년30명 / 전도훈련	
	홍지영 목사	영성훈련 / 부흥사	
	임동호 목사	목회 AI 활용법 / 찬양	

주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개혁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른신께 페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께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전하세요!

###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앙 교육

- 외국어 성경 생생한 원어 발음
- 해외 기독교 서적도 쉽게 번역
- 스캔, 음성, 사진 3가지 방식으로 통 번역
- 영어, 국어, 한자 전자사전 기능으로 문해력 도움

### 신학생들과 해외 사역자들에게도 유용

- WiFi 없이 9개 언어 오지에서도 완벽 작동
- 선교지에서도 언어 장벽 해결
-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 사용
- 60개 언어로 어디든 담대하게 복음 전파

† 독자 특별 혜택  
정상가 398,000 → 할인가 259,000원  
문의 010-9965-0961

빠른구매



AI보카펜만의  
독보적인 5가지 차별점

1. 4가지 사전으로 영어, 국어+문해력  
콜린스 영어사전, YBM영한사전, 표준국어대사전, 에센스한자사전
2. 인터넷없이도 9가지 언어 번역
3. 60개 언어 지원 - 진정한 글로벌 기기
4. SD카드 확장 - 무한 성장 가능
5. 36,000자 토플, 토익 등 대용량 단어장



# 일상을 기도로 바꾸는 8가지 발걸음

신간 '성막에서 기도를 배우다'



기도하고 싶지만 막상 입을 열면 말이 흐르지고, 마음은 끊없이 산만해지는 경험. 하루의 무게를 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이유 없이 막막함이 밀려오는 경험. 〈성막에서 기도를 배우다〉는 바로 그 막막함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책이다.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닌 '머물고 싶은 자리'로 바꾸는 실제적인 8단계 성막 기도법을 통해,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곧장 향하게 만든다.

저자 김성일 목사(평택대광교회 담임)는 25년 넘게 군 선교 현장에서 두려움과 피로,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만 했던 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체득해 왔다. 그 과정에서 성막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려 주신 영적 지도라는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다.

그리고 그 지도를 따라 걸을 때, 기도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즉시 체감되며 실제의 길이 된다.

문을 지나고, 뜰을 걷고, 번체단 앞에 서고, 지성소로 나아가기까지—이 책은 그 여정을 오늘 그리스도인의 하루 위에 그대로 펼쳐놓는다.

저자는 성막을 통과하는 8단계를 따라 기도가 어떻게 살아나고, 방향을 찾고, 깊어지는지를 차근히 안내한다.

▲문 - 감사의 기도: 작고 단순한 "감사합니다"가 영혼의 문을 여는 스위치가 된다.

▲성막 뜰 - 친양의 기도: 문제에 고정된 시선을 하나님께로 재정렬하는 순간 마음의 어둠이 걷힌다.

▲번체단 - 회개의 기도, ▲물두명 - 정결의 기도, ▲금등대 - 성령의 기도 등 각각의 단계는 흘러진 마음을 차근히 모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이 여정의 끝에는 마침내 지성소에서의 임재 경험, 즉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기도'가 기다리고 있다.

기도에 어렵고, 말이 흐려지고, 마음이 잠겨 버릴 때—이 책은 그저 "더 노력하라"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놓아두신 영적 구조를 펼쳐 보이며, 기도의 감각이 회복되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기도가 부담이었던 사람에게는 기도를 다시 시작할 용기를, 기도가 형식으로 굳어버린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동감을, 분주하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방향을 보여 줄 책이다. 책은 기도의 훈련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은 멀지 않다고, 이미 눈 앞에 펼쳐져 있다"고 말한다.

최승연 기자

신간

## 크里斯천 청소년의 다른 공부법



청소년의 공부를 성적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신 세상을 책임 있게 돌보기 위한 '다스림의 훈련으로 재정의하는 책' 〈크리스천 청소년의 다른 공부법〉이 출간됐다. 이 책은 수면·운동·시간 관리·공간 정리 등 생활 습관부터 예습·복습 문제집 풀이 같은 실질적 학습 기술까지, 신앙과 일상을 아우르는 '통합적 공부법'을 제안한다.

저자 이정호 교사는 기독교대안학교인 독수리기독학교에서 20여 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교육자로, 학교와 교회 현장에서 성경적 학습과 전도를 꾸준히 연구해 왔다.

전작 『크리스천 십대의 진로 여행』에서 청소년이 소명을 발견하도록 이끌었던 그는, 이번 책에서 그 소명을 실제로 이루

어 가는 데 필요한 공부의 원칙과 실천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세상은 '어떻게 공부할까'라는 기술에 집중하지만, 이 책이 먼저 던지는 질문은 '왜 공부하는가'이다. 저자는 공부를 하나님께 명하신 '다스림'의 한 영역으로 설명하며, 공부는 시험 대비와 입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을 이해하고 이웃과 맡겨진 자리를 책임 있게 섬기기 위한 '정지기 훈련'이라고 말한다. 목적이 바로 설 때 공부의 기준과 방향도 새로워진다는 것이다.

〈크리스천 청소년의 다른 공부법〉은 청소년의 삶을 신앙, 생활, 학습이라는 세 축으로 나누어 설명하지만, 서로 단절된 영역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된 하나님의 구조로 다룬다.

2부 『신앙의 다스림』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지혜

의 근본으로 삼고, 말씀 묵상과 기도 실천을 통해 자기 성찰 능력과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을 세우도록 돋는다.

3부 '생활의 다스림'은 수면·운동·시간 관리·공간 관리라는 네 가지 생활 습관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공부하려면 잠을 줄여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각자의 몸에 맞는 적정 수면 시간을 찾는 법, 꾸준한 운동으로 학습 균형을 기르는 법, 우선순위를 세우는 시간 관리, 공간의 질서를 회복하는 정리 습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책은 공부를 잘하기 위한 요령을 넘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라는 더 큰 질문을 향하도록 돋는다. 신앙과 생활, 학습이 단단히 연결될 때, 청소년은 흔들리지 않는 공부의 동력과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저자의 메시지다.

최승연 기자

## 한세대, 최광현 교수와 함께하는 '인문학 다행방 북토크' 개최

「가족의 두 얼굴」 중심으로 가족 간의 심리적 관계와 갈등을 탐구하며 인문학적 소통의 장 마련



한세대학교(총장 백인자)가 최근 영산비전 센터 2층 Learning Commons 풀에서 '가을愛 도서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족의 두 얼굴」의 저자 최광현 교수와 함께하는 '인문학 다행방 북토크'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얼굴' 표지 이미지 ©한세대 이번 북토크는 한세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가족상담 전공 최광현 교수가 자아낸 저서 「가족의 두 얼굴」을 중심으로, 가족 간의 심리적 관계와 갈등을 탐구하는 강연이 진행됐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와 저자가 함께 질문과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공감형 인문학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참여자들은 저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책의 핵심 메시지와 접점 의도에 대한 생생한

설명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심도 깊은 토론을 벌였다.

한세대학교 도서관 관현기관장은 "저자와 함께하는 '인문학 다행방 북토크'는 저자의 접점 의도와 메시지를 직접 듣고 토론하며 사고력과 표현력을 향상하고 전공 간의 교류와 지식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전했다.

최광현 교수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려는 노력,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마음이야말로 가족 안의 수많은 갈등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가족치료의 핵심은 관계와 소통이다. 그리고 소통의 핵심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역지사지', '감정이입' 더 나아가 '공감'으로 정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장지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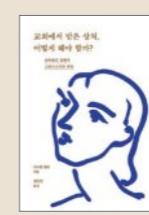
제자(최광현 교수)와 함께하는 인문학 북토크  
일시: 2025학년도 2학기 가을학기 프로젝트  
장소: 도서관 2층 Learning Commons

최광현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한세대

12월, 작가들의 말말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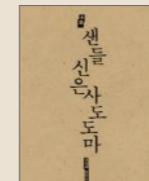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다. 그렇다 면 영적으로 험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 주님의 깃발이 되어 휘날릴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둠의 세력에 지지 않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다르게 볼 것이다. 아니, 그들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그를 따라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다. 주님의 군사는 주신 사명을 기뻐하며, 순간순간 군사로 살아간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랑은 찬 손을 녹인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명예나 인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혹시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데 인간관계로 인해 자주 힘을 잃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회의를 느끼는가? 그렇다면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나는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일을 내 힘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욕심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양창삼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



이제 다룰 문제는 명확하면서도 까다롭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때문에 혼란과 좌절이 찾아오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반응하고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감정이 상해 마음속에 격랑이 일 때 가능한 한 빨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질문의 답을 찾다 보면 이전에는 몰랐던 근본적인 원인이 드러납니다. "이 문제에서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불쾌한 감정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나의 간절한 바람이 가로막힌 경험이나, 이루고 싶은 목표가 좌절된 일과 연관된 것은 아닐까?"

대니얼 밀러 '교회에서 받은 상처, 어떻게 해야 할까?'



"숨겨진 씨앗창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른 사막 저 깊은 곳에도 수액은 흐르고 있고 씨앗이 될 종자는 뿌려져 있다. 이를 찾아 파기만 하면 샘물이 솟는다. 그처럼 이미 흘뜨려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다. 저들을 디아스포라 한다. 예수는 장차 이 디아스포라를 찾아 유용하게 쓰기 위해 미리 이들의 흔적을 찾아보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여행에 도마를 동행하고 나선 것은 그에게 면 미래를 보여주기 위한 준비인지도 모를 일이다. 예수는 우선 이곳을 후일 세울 성전의 주춧돌로 삼는다. 그러나 면 훗날 이루어질 계획이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뜻을 해아리지 못한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들을 줄 안다. 우주적 운행에 대해선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이게 바로 계획이요 설계다. 계획과 설계도는 이루어지기 전에는 깨달을 수 없다.

표성훈 '샌들 신은 사도 도마'

##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크리스천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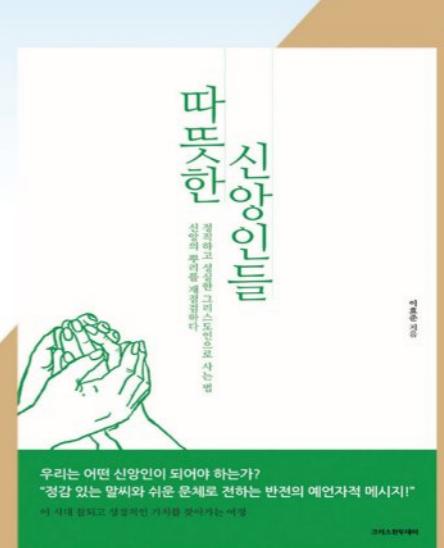


추천사

장로님께서 질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갑 정교(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범어중앙교회)

증언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울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창원내산교회)



##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 매일묵상 일어나 떠날지어다

[미가 2:10]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멀하리니 그 멀망이 크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 메시지를 이제는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입니다. “네가 거하고 있던 집에서, 네 사업을 경영하던 도시에서, 너의 가정과 친구들로부터 일어나 떠날지어다. 일어나 너의

남은 마지막 순례길을 떠날지어다.” 여러분은 그 순례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장차 우리가 가게 되어 있는 그 나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 읽어서 알고 있고 또 성령께서 어느 정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영역에 대해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적습니다. 그곳에는 “사망”이라 불리는 사납게 날뛰는 음흉한 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겠다고 약

속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강을 건너라고 명하십니다. 그럼 그 사망 뒤에는 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눈앞에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전개되어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도대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 펼쳐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그곳에 도착한 순례자 중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말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천국으로 오라는 하

나님의 부르심을 기꺼이 즐겁게 따를 수 있을 만큼은 천국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사망의 강을 건널 때는 어둡고 깁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시므로 아무런 해도 당할 염려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담대히 그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알고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곧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이 계신 곳.” 그 기초를 하나님이 세우고 만든 도성”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다른 백성들과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기 위해 우리가 마지막으로 떠나야 할 것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해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천국만 바라보고 죽어야 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 도상에서 겪게 될 수고들에 대해서도 잊을 수 있

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눈물 골짜기는 보다 나은 나라로 가기 위해 거쳐가는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은 축복의 나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디딤돌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의 빛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네 주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준비시켜 주소서 우리 영혼을 향해 일어나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합창 소리에 화답하라고 명해 주소서!”

찰스 스필전의 아침묵상, 열방선교단 제공

### 날새를계하소서 스콜라 철학 (6)

바젤 회의(1431년)

바젤(Basel) 회의는 교회 전체를 개혁하고, 이단을 전멸하고, 그리고 기독교 간의 평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이를 ‘사단의 집회’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회의에서는 교황 없이 회의를 강행하였습니다. 주요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회의는 교황의 위에 있습니다.

교황의 권세와 강제 징세는 제한합니다.

교직자일지라도 죄가 있으면 처형합니다.

장로와 집사 등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있어서는 결의 내용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다만 교회 개혁의 필요성을 크게 부각시킨 데에서 그 업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종교 개혁자들에게 개혁에의 길을 제시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동로마 제국의 형편을 잠시 소개하면, 동로마 제국은 1453년 터키 왕 모하메드 2세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되고, 동방 교회도 그 운명을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란(Koran)의 원리에 따라, 기독교인은 비록 전도는 할 수 없으나 신앙 유지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교리와 조직과 예배는 변함이 없었으나, 날로 쇠퇴 일로를 걷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그리스 도인들은 이슬람교도들에게는 부과되지 않는 각종의 과다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기독교 교직자의 권위는 하락되고 단지 꼭두각시에 불과했습니다. 기

독교도에 대한 여러 가지 학대가 심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 사상가들

교리적 개혁 사상가

존 워클리프

존 워클리프(John Wyclif, 1324년-1384년)는 영국 출신으로서, 부패한 성직자들의 교권 남용을 비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교회는 부와 정치적 세력과 연합함으로 부패되었으므로 근본적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지배의 법이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는 시민적 지배법

이고, 또 하나는 신적 지배법으로서 이는 다분히 요아킴(Joachim)의 혁명적 사상의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는 교황을 훙평하기를, “그는 적

그리스도(Anti-Christ)이며, 오만하고 세속적인 로마의 감독이며, 가장

착취를 잘하고 약탈을 잘하는 저주

받은 인물이다”라고 했습니다. 교황

도 역시 오류를 지닌 인간이기에 그

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고 보았습니다. 워클리프는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을 부인하고 공재설(Consubstantiation)을 말했고, 로마

교회의 무오성(無誤性)이라든지, 비밀

교회, 연옥 사상, 성지 순례, 성자 숭배

등은 비성경적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교황은 1377년 그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그를 처형시키려 했으나, 영국

왕후와 민중의 후원 때문에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워클리프는 영국 왕의 지원

아래 하나님의 종파적 비판을 로마에 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완전한



개혁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세기, 15세기에는 교회의 전통과 대립되어 평신도 운동, 성서주의 운동이 크게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중세 교회는 어거스틴-토마스적 전통에 따라 예정 교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정된 사람들의 전체 조직체라는 어거스틴의 불가시적 교회론을 수용했지만,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과 선택된 자들의 불가시적 교회를

분명히 동일시한 신비한 몸에 대한 새 해석의 교회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워클리프는 성육신한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기초한 신비한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개념 속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층 조직(hierarchy) 속의 교회를 대항하여, 그 체계 안에도 예정되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최초로 영어 성경을 번역했는데, 이전까지는 제롬(Jerome)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Vulgate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부터 완전한

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과 동시에, 이는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최상임을 은연 중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교회론의 강조점은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이 주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으며, 교황의 성직자의 세속에 대한 지배권을 제거하고 성서의 권위가 그것을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독교의 법률은 오직 성경뿐이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성서의 권위가 전승의 권위를 압도하는 것이라고 본 것은 틀림없으나, 아직 그에게 성서는 ‘용서의 말씀’이 아니라 ‘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아직 종교 개혁가들의 성경관과는 구별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정신은 롤라드(Lollard) 운동, 즉 백성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며, 제자들을 둘씩둘씩 전도에 파송하며, 사도적 청빈주의에 입각하여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맨발로 전도하는 단체 운동이 지속되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정신은 롤라드(Lollard) 운동, 즉 백성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며, 제자들을 둘씩둘씩 전도에 파송하며, 사도적 청빈주의에 입각하여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맨발로 전도하는 단체 운동이 지속되었습니다.

존 후스

존 후스(John Hus, 1369년-1415년)

는 보헤미아(Bohemia) 출신으로서, 위

클리프의 교회를 추종하였습니다. 그는 교회 안(in)의 사람과 교회의(of) 사람을 구별하였고, 교회 안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참된 교회원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주적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이며, 교황과 감독들의 통치는 교회에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족주의와 개혁 운동의 지도자였던 그는 성직자의 부과와 성직 매매를 반대하는 글과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교황의 면죄부 판매를 공격한 후 교황이 그를 파문함에 항거하여 종교 회의에 교황을 고소했으나, 결국 모략에 걸려 화형당했습니다.

실제적 개혁 사상가

사보나롤라

사보나롤라(Savonarola, 1452년-1498년)는 이탈리아 출신의 도미니파 수도

사로서, 그는 교리적인 면에서의 개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인들의 부도덕과 악습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교황의 부도덕성(Papal Immorality)에 대해 비난하다가 1498년 5월에 화형당했습니다.

피터 월도(알도파 연구는 중요하다)

피터 월도(Peter Waldo, -1197년)는 프랑스 리옹 출신의 부자 상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게 된 후 그는 세속적인 재화와 부를 포기하고 그 대신 빈곤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활동

초기에는 가톨릭의 교리와 지시를 받아 들였고, 노방 전도를 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신약 성서를 암송하며, 이를 문자적으로 실천했으며, 은밀한 기도 생활과 금식을 많이 실행하였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생활 규칙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회의 허가 없이 그의 추종자들은 스스로 설교하고 성서 번역을 하여 사용했습니다.

그가 회의에서 설교자의 자격을 달라고 했을 때, 교황은 그가 무식한 평신도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월도는 “교황은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인간의 소리”라 외치며, 동지들과 전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교황 루카우스(Lucius) 3세는 이단이라는 이유로 1184년에 그를 파문시켰습니다. 월도의 파문은 로마 교회가 사랑보다는 법으로서 다스린 결과였습니다. 결국 교황의 처사는 월도파의 교회로부터의 분리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청교도 도서관 제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 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의 영혼의 양식(30)

## “그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11절

**서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일상에서 “인격적으로 대한다”,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무엇인지를 훨씬 분명해집니다. 비인격적 관계는 상대를 하나님의 ‘수단’처럼 대할 때 생깁니다. 마음은 무시된 채 결과만 바라보고, 사람을 감정 없는 기계처럼 만나는 대상입니다.

반대로 인격적 만남은 마음이 마음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상대를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마음이 깊이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자체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막연한 힘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설명하는 대상’이 아니라 ‘만나는 대상’입니다.

**본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일 뿐 아니라,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단계로 보여줍니다. ① 하나님 먼저 찾으시는 은혜(5-8절) ②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자리(9절) ③ 은혜를 받아들이는 의지적 결단(10절 상) ④ 삶의 방향이 바뀌는 열매(10절 하)입니다. 바울은 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마지막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Ⅰ. 인격적 만남은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고전 15:5-8). 바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보이셨고, 보이셨으며…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고백은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내 인생을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성

경은 이를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눅 19:10). “내가 찾으시는 은혜(5-8절) ②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자리(9절) ③ 은혜를 받아들이는 의지적 결단(10절 상) ④ 삶의 방향이 바뀌는 열매(10절 하)입니다. 바울은 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마지막에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 한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의 인격을 만지고, 방향을 바꾸신 사건을 압축한 고백입니다.

Ⅰ. 인격적 만남은 하나님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고전 15:5-8).

바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보이셨고, 보이셨으며…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고백은 신앙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내 인생을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성

II. 인격적 만남은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일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직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고전 15:9)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울이 오랫동안 자기를 분석하며 자기 죄를 찾아낸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 앞에 서자 갑자기 어떤 존재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작은 얼룩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한 빛이 비치는 순간, 보이지 않던 먼지와 자국들이 그대로 드러나듯,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우리의 내면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가식도, 포장도, 자기합리화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동일한 경험을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증언합니다.

**1. 이사야의 무너짐(사 6:5)**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외칩니다. 예배 인도자이고 선지자였던 그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자신의 부족함과 부정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을 파괴하지 않지만, 교만을 무너뜨리고 숨겨진 실체를 드러내는 빛입니다.

**2. 베드로의 무너짐(눅 5:8)**

베드로는 기적의 그물을 보고 감동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평생 아부로 살아왔고, 나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함이 가까이 오자, 겉으로는 보이지 않던 자기 중심심, 완고함, 교만이 드러난 것입니다.

**3. 말씀의 빛(히 4:12-13)**

히브리서는 말씀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주는 텍스트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해부하는 빛입니다. 사람에게 조차 말하지 못한 동기, 나도 모르게 쌓아둔 두려움, 신앙의 옷을 입고 숨겨둔 죄책감, 말씀의 빛이 비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1) 말씀 앞에 설 때 일어나는 실제 경험**

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이 찔리고, 숨겨진 죄가 떠오르고, “이 말씀이 내 이야기다”라는 깨달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힘들어 시즌에 시편 23편을 읽는데 설명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를 때, 관계 갈등 후 마태복음 5장을 읽다가 마음이 죽 찔릴 때, 누가복음 15장의 당자를 읽다가 “저게 바로 나구나…” 하는 자각이 올 때, 시편 139편을 읽는데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심이 두렵고도 은혜롭게 다가올 때, 그 순간은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추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2)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다.**

주님 앞에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려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정죄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깨달음은 우리를 변화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래서 초신자든, 평생 신앙생활을 한 성도든, 참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인격적 만남은 하나님이 나를 폭로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려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III. 인격적 만남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의지적 결단**

여기서 말하는 의지적 결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말을 듣는 순간 “예”라고 반응하는 선택입니다. 감정에 흔들리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 앞에서 마음을 열고 방향을 돌리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이신 분이라 예지로 끌어오지 않으십니다. 초청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초청 앞에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결단을 다음과처럼 말합니다.

1) 영접은 의지의 선택(요 1:12): “영접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주님, 제 삶에 오십시오”라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2) 초청에 응답하는 선택(계 22:17): “듣는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받으라.” 응답 없는 만남은 없습니다.

3) 고백은 의지의 표현(롬 10:9-10):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을 통해 실제가 됩니다.

IV. 인격적 만남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10절) 인격적 만남은 잠시 눈물 흘리는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전환되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변화를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1) 존재의 전환(고후 5:17):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정체성이 바뀝니다.

2) 행동의 재구성(약 2:17): 말씀 중심의 선택이 시작됩니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순종할 힘이 생깁니다.

3) 가치관의 재배치(빌 3:7-8): 나의 유익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귀해집니다. 바울의 변화는 단순한 태도 변화가 아니라 전 인격의 완전한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적용**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과 성령을 통해 명분하게 우리와 교통하십니다. 성경이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융성처럼 들릴 때, 말씀이 ‘내 이야기’처럼 다가올 때,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뜨거움이 올 때,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 속에서 깊이 느껴질 때, 말씀 앞에서 숨겨진 마음이 비칠 때,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에게 보이시는 자리입니다.

**결론**

“그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경험한 인격적 만남의 네 단계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①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 ②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깨달음 ③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의지적 결단 ④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열매, 이네 가지가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날 때 그는 주제 없이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게도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내 인격을 만지셨습니다.”

이제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말씀 앞에서 드러난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을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실제로 걸음을 옮길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두드리십니다(계 3:20).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기다리며 부르십니다. “너는 네 마음을 내게 열겠느냐?” “내 음성에 응답하겠느냐?” 이제 예배가 주님께 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보이지 않으나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무리 기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예”라고 반응하는 마음을 주시고,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난 증거로 변화되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으로 보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원호 목사 (서울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전 교인을 위한 기도 필독서 캠페인**

“언제까지 남의 기도문에 의존하시겠습니까?”

하브루타식 기도훈련 적용 가능  
- 질문하여 묻고, 나누며 배우고, 기도하여 적용한다  
- 설 모임 / 제자훈련 / 청년부 / 사회학교까지 전 세대 활용 가능!  
✓ 대표기도가 부담스러운 성도에게  
✓ 기도 습관을 배우고 싶은 새신자에게  
✓ 공동체 전체의 기도 체질을 바꾸고 싶은 교회에 “기도할 때 역전되리라.”  
단체 구매 및 전 교회 기도 캠페인 문의 edu10004@naver.com

##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 은혜의샘물 헌신과 사랑 (4)

셋째, 헌신적인 사랑은 책임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적 존재로 지음 받았고 톨스토이가 말한 대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여기서 사랑은 책임이 수반되는 사랑, 약속이 지켜지는 사랑을 말한다.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이행하는 사랑이 헌신적인 사랑이다.

사랑과 책임은 정비례한다. 사랑이 있으면 책임도 있고, 사랑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아담은 이브에게 책임을 느끼지 못했다. 하나님과 맷은 약속, 과기의 책임을 이브에게 떠넘겼다. 사랑이 없었다는 증거이다. 가인은 아벨에게 책임을 느끼지 못했다. 자신의 불행을 아벨의 턱으로 돌려 동생을 죽였다. 사랑이 없었다는 증거이다.

요나는 니느웨의 백성에게 책임을 느끼지 못했다.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책임을 느끼지 못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책임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불쌍한 민중에게 가중한 율법의 명예를 메도록 했다. 이 모든 이들이 책임을 느끼지 못한 것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가짜란 것을 알 수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책임 있다.

넷째, 헌신적인 사랑은 이해와 존중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 가짜이다. 이해란 말을 영어로

'언더스탠드(understand)'라고 한다. '언더스탠드란 아래에 선다는 뜻이다.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알기 위해서 상대방 밑에 선다는 뜻이다. 자신을 낮추면 상대방이 커 보인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면 존중하게 된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헌신적인 사랑이다. 사랑은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해는 사랑을 심화시킨다. 깊이 이해하면 깊이 사랑하게 되고, 깊이 사랑하면 깊이 이해하게 된다.

빌립보서 2장 2-4절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을 충만케 하라."고 하였고, 로마서 12장 9-10절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이해와 존

중이 있다.

다섯째, 헌신적인 사랑은 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사랑하면, 시간, 돈, 정성, 재능 할 것 없이 무엇이든지 주려고 한다.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다. 무엇을 주느냐를 보고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다.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 이 사랑이다. 주어서 기쁜 것이 사랑의 생리이다. 주어서 풍성해지는 것이 사랑의 신비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깝다는 생각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사랑하

면 아깝다는 생각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일지 않는다.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할수록 가장 소중한 것조차 아낌없이 주려고 한다.

사랑은 한 자루의 초와 같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을 산화시키는 것과 같다. 사랑은 많은 열매를 맺히려고 땅 속에 묻힌 한 알의 밀알과 같다. 헌신적인 사랑은 관심과 배려와 기도와 책임과 이해와 존중과 주는데서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

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7절에서 하신 말씀이다.

헌신적인 사랑이 참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헌신적으로 사랑하셨다. 이 헌신적인 사랑을 성서는 아기폐의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 아기폐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점적인 사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신앙은 삶의 방식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 사랑과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여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제공

### 향유목

##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버릴 것을 찾아보고

건강만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살아 있음을 감사하고

명예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름 없는 소박함을 즐기고

부유함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미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장수만을 생각하지 말고  
천국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태어난 깊음을 알아  
그 길로 나가보십시오.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그리고 자유함이

내 맘과 내 삶에  
중만이 체워질 것입니다.

산마루서신 제공

〈산마루서신〉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 교회오빠

## 죄책감에서 벗어나 밝은 세계로

비장, 백조의 흐수, 흐두까기 인형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표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는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몹시 부끄러워했습니다.

죄의식과 자기 혐오, 세상에 알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이것이 차이코프스키의 내면세계를 가득 메우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그 그림자에 내몰리면서 차이코프스키

는 점점 의기소침해졌고,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그는 폐렴에 걸려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스크바 강에 들어가 가슴 까지 치우르는 물 속에 있었지만, 바라던 폐렴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차이코프스키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는 제자였던 젊은 여성으로부터 구애를 받았습니다. 안토니나 이바노브나

미류코비, 그녀는 갓 스물의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결혼해 주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다는 말로 결국 청혼하여 결혼했으나 그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내에는 모든 일에 순종적이고 불만을 나타내는 일이 없어. 어리광을 부리거나 나를 감싸주는 아내를 볼 때마다 고로워

내가 아내를 어떤 식으로든 절망케 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 될 거야. 하지 만 아내는 나에게 형제 같은 사랑일 뿐이고, 육체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차이코프스키는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불행한 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날 일입니다. 저 밝은 세계로 나아가면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창골산 봉목사 제공

### 신앙과 가정

## 하나님을 믿은 옵

옵은 앞뒤, 윤편, 오른편으로 다 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다 둘러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해 뜨는 곳을 보아도 해 지는 곳을 보아도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옵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10)"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게 안 보이지만 날 위하여 활동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먹구름 끈 날 해는 안 보일 뿐 분명히 구름 위에 있는 것

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안 나타나시더라도 활동하고 계심을 옵은 조금 도 의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비 오는 날 칼칼한 밤일자리도 별은 여전히 구름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사냥꾼이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사냥하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따라 폭풍우가 세차게 쳤습니다. 그들은 비를 피하여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좀처럼 비가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밤새 동굴 속에서 무서워서 움츠렸고, 추워서 떨었습니다. 드디어 고요한 아

침이 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동굴을 나와 걸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동굴 속에서 떨고 있는 간밤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라고 조금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면서 "하나님은 고요한 좋은 아침을 만들고 계셨어"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나타날 때라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옵은 이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굽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에서를 피

하여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벤엘에 오니 해가 져서, 돌을 베개 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꿈에 사다리가 하나님까지 놓여지고 천사가 오르락내리 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창2816)"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야곱이 모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활동하고 계셨음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활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제공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NICH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열어갑니다



국토교통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 더 깊은 예배를 준비하라

마지막 달이다. 나 또한 여느 예배인도자들처럼, 지난 한 해를 시작하며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고백들이 실제 내 삶에 적용되기도 전에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접어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좌책감이 든다. 예배인도자에게 있어서 한 해를 살면서 가장 많이 후회되는 것이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회중을 더 깊은 예배로 이끌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책감일 것이다. 예배가 더욱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나는 청소년기를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보내지 못했다. 청소년기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방황했던 내게 당시 가장 두려운 것이 있었다면 바로 '법'이라는 존재였다. 늘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나에게 법이란



고옹일 목사

무서운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면 서부터 나는 오히려 법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죄는 율법이 있거나 존재했지만, 유행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다가(롬 5:13), 유행이 들어오면서부터 죄는 심히 죄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롬 7:13). 그렇다고 해서 유행이 죄를 만들어낸 도구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세상에 법이 없으면 죄를 죄라고 말할 기준이 없는 것처럼 유행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라고 측정할 도구가 없었을 뿐이다.

이제 유행이 움으로써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룸 5:20에서 "유행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는 20절 후반에 이어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구절에서

우리는 더 깊은 임재가 있는 예배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다.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다시 유행과 죄의 관계를 정리해보자.

율법은 무엇인가? 먼저,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에게는 죄를 계산하게 하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그 유행

는 도구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의 양을 측정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행의 역할은 지금까지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은 "...죄를 점점 더 발견하는 만큼 은혜는 더욱 넘치는 것"이다.

율법은 죄를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의 양을 측정하게 하는 도구

이 존재하는 한 그 아래에서 끊임없이 죄가 죄로 계산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유행으로 측정된 자신들의 죄를 없앨 만한 도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은혜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그 유행은 죄를 측정하

우리의 은혜를 측정하는 유행이 무엇인가? 살아계신 말씀이요, 유행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팀 휴즈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고요한 시간이 예배자의 열정을 더 뜨겁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하나님 음성 앞에 나 자신

을 비추는 시간이며, 그 시간은 나 자신의 부족함을 더 발견하는 동시에 나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더 발견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간절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시간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 더 깊은 임재가 있는 예배로 들어갈 수 있다. 해에 시작될 더욱 더 깊은 예배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바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인도자의 다짐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다가오는 새 그때로부터 시작된다.

아가는 일은 더 나은 환경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주님의 말

## ◆고옹일 목사

영남신학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과 신학을 전공하고,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전 풍성한교회 찬양디렉터로 사역했던 그는 한국, 미국, 중남미에서 다년 간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교회적 상황에 따른 예배사역의 노하우들을 터득하였으며, 그 외에도 중국, 일본 및 중남미 지역을 다니면서 각 나라 언어로 선교 집회 찬양을 인도해왔다.

『꿈꾸는 예배 인도자』의 저자이며, 현재 미국 LA 카운티 지역에 소재한 주안예교회에서 예배사역을 하고 있다.

## 회중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히브서 2:11-12)

키르케고르(Soren Kierkegaard)는 예배를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예배는 한 분의 관객이신 하나님을 위해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연기가 연기에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예배와 연극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연극에서 연기자는 맡은 역할이 없으면 연기자로서가 아니라 관객의 한 사람으로 동료의 연기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음을 선포함으로써, 찬양대원은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회중은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 있는 모든 회중은 배우이며, 강단이 무대가 아니라 예배당 전체가 무대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그룹이 찬양하더라도 회중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찬양대는 찬양으로 참여해야 하고, 회중찬송은 소극적으로 참여해야 해야 합니다.

찬송이 갖는 최고의 가치는 능동적인 표현에 있습니다. 혼자서 생각하는 것과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 다르듯이, 말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 또한 다릅니다.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표현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찬양은 두 번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공동체가 노래로써 표현한다는 것은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구체적인 찬양은 예배자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회중찬송의 본질적 가치는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질에 있습니다.

예배자가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실제적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배 참여를 위한 실제적 고려 사항

예배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

예배자에게 알맞은 음악과 가사의 내용이어야 한다.

봉헌송과 같은 순서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찬송 부르는 방법을 다양하고 변화 있

게 한다. 찬양대의 찬양 시간에 회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예배를 들면 찬양대가 노래할 때 회중도 함께 일어선다. 또는 찬양대가 노래할 때 찬송 협주곡과 같이 회중이 부분적으로 참여한다.

찬송이 갖는 최고의 가치는 능동적인 표현에 있습니다. 혼자서 생각하는 것과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 다르듯이, 말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 또한 다릅니다.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표현의 깊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찬양은 두

번 기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공동체가 노래로써 표현한다는 것은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구체적인 찬양은 예배자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회중찬송을 통해 나타납니다. 물론 양

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 즉 능동적인 표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회중찬송의 가장 큰 문제는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입니다. 회중은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찬양에 몰입하지 않고 방관하는 사람들이 예배 속에 많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책임이 회중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중이 찬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한 지도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년과 청소년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구의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까?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인도자의 수준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알맞은 음악을 선택하여 불리야 하는데 두 그룹의 차이가 생기

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어렵겠지만 그 래도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찬송을 균형 있게 선택하여 노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적 예배의 구체적 행위는 예배자의 입술을 통한 언어와 찬송, 그리고 행동으

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입술을 통한 찬송은 개인의 신앙의 표현은 물론이고 예배하는 공동체의 표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회중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 # 찬양 한 모금

이 모든게 은혜였소 피로 사신 생명  
나 어찌 잊었나 나를 위한 이 은혜를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오를 수 있을까  
그 고난의 언덕 예수여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노민

#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대한제지

## 로제타 셔우드 훌 내한 135주년… 송도서 기념행사·음악회 열려

기념사업회·기감 중부연회 공동 주최, 지역사회 리더들 한자리



로제타 훌 내한 135주년 기념행사 및 기념음악회 내빈들이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로제타셔우드홀 기념사업회

로제타 셔우드 훌 선교사 내한 13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가 최근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강당에서 마련됐다. 갑작스런 한파에도 300명 이상 모여, 조선 땅에 의료와 교육의 빛을 심었던 한 여성 선교사의 삶을 기리고 오늘날 그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다.

이번 행사는 '나눔의 유산, 미래의 약속'을 주제로, 로제타홀기념사업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가 공동 주최하고, 로제타홀기념관과 로제타홀 진료소가 주관했다. 강경신 로제타홀기념관장을 비롯해 배준영 국회의원, 인천기독병원인천시의사회·간호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선교사의 삶이 한국 의료와 지역사회에 남긴 흔적을 되짚었다.

강경신 관장은 환영사를 포함해, 노이호 이사장, 배준영 의원, 신용대·황규호 목사, 김형기 인천기독병원장 등이 차례로 기념사와 축사를 전했다. 강경신 관장은 "작은 시도들이 지역과 연결되며 변화로 이어진 것은 주민과 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요구를 세심히 듣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

을 잡는 기관으로 남겠다"고 말했다.

로제타 셔우드 훌(1865~1951)은 미국 북감리교가 파송한 여성 의사이자 교육 선교사로, 1890년대 초 조선에 와 40

여년 동안 서울·평양인천을 오가며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을 위해 의료와 교육 사업을 펼쳤다. 그는 서울에서 보구녀관과 밭도원 진료소(이하 의료원)에서 여의사와 간호인력을 길러냈고, 평양에서는 맹아 아동을 위해 한글 점자를 응용한 문자 체계를 만들어 가르치며 우리나라 최초의 맹아교육과 평양 농명학교·어린이 병원 설립을 이끌었다.

인천에서는 인천부인병원(현 인천기독병원)의 설립을 주도해 당시 의료 사각지대에 있던 여성과 가난한 환자들을 돌봤고, 조선여자의학강습소 개설에도 참여해 오늘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백선영 기자

이어지는 한국 여성 의료교육의 티내를 놓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남편과 딸을 먼저 양화진에 둔아야 했던 고통의 시기에도 그는 조선을 떠나지 않았고,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라는 말처럼 일생을 한국의 의료·교육 사역에 헌신했다. 이날 2부 기념음악회에서는 송도로yal 어린이합창단, YWCA 합창단, 인천장로성가단, 부평교회 예루살렘 찬양대 등이 순서에 올라 각 팀이 준비한 찬양을 전했다.

김형기 인천기독병원장은 "인천부인병원에서 시작된 의료 선교의 뿌리가 지금은 '로제타홀' 이주민 진료소'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며, "주중에 병원을 찾기 어려운 아주민들이 매주 일요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이 헌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 여의도순복음교회, 2025 성탄트리 점등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가 최근 교회 입구가 남은 광장에서 2025년 성탄트리 점등식을 개최했다. 교회는 이 성탄트리를 내년 1월 초까지 점등할 예정이다.

이날 점등 신호에 맞춰 트리와 주변 조명이 일제히 밝혀지자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했다.

이영훈 담임목사는 축하 메시지를 통

해 "성탄은 온 인류의 최대의 기쁨이며, 모두에게 희망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복된 날"이라며 "매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성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점등식에는 찬양대의 특별 찬양을 비롯해, 이영훈 담임목사를 비롯한 교회 주요 인사들이 점등위원회로 참여했다.

김진영 기자

## 월드휴먼브리지, '어르신 초청 가을 작은 음악회' 개최… 따뜻한 무대로 독거어르신들에게 위로와 기쁨 전했다

국제구호개발NGO 월드휴먼브리지(대표 김병삼)가 주최한 '어르신 초청 가을 작은 음악회'가 최근 서울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 열렸다. 월드휴먼브리지 본부와 서울 지역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양천어르신복지관이 협력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을 비롯해 60세 이상 노인 150여 명이 참석하며 따뜻한 가을 정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다.

행사는 한승호 양천어르신복지관 관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개그맨 이정규 씨가 사회를 맡아 무대를 자연스럽고 유쾌하게 이끌었고, 스트링프레즈



음악회 현장의 모습. ©주최 측 제공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이날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됐다. 경품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이 전달되며 참석자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최승연 기자

###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수령로교회 4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시선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365 새벽기도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울림(47회) 30 TV강단 하늘빛광성(박경수)	1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30 복음강단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지구촌-김우준 30 생명의 말씀 오병이어-권영구	20 힐링스토리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167회) 50 [말씀] 권혁빈 목사(씨드교회)(176회)	00 생명의 양식 정윤(유성택) 30 말씀의 능력(전태식)(559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변담화(972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5회)
	7:00 00 CTS뉴스 20 생명의 말씀 대전한빛-백용현 50 생명의 말씀 영광제일-이기웅	10 조정민 목사의 답답답 20 사랑의 메시지 대치순복음(한별) 50 사랑의 메시지 원남(권기웅)	30 잇수의 서재(3회)	20 김동호 목사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504회)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80회)	00 청주금천교회 주일예배실황 신경민 목사
	8:00 20 내가 말이 기쁘게 개그우먼 정경미	20 김신욱 목사와 함께하는 신양톡톡 30 체인지 더 월드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658회)	00 하나님의 음성(97회)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4394회) 마태복음 7강	00 강연소 통(38회) 대인관계에서의 자존감과 수치심 50 믿음의 리액션(7회) 인천광역시
	9:00 1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시편 9강 권수경 목사	30 비전설교 라이프처치(심성수)	00 [말씀] 흥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모브먼트)(95회) 40 Q&A 107 소요문답(57회)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18회)	10 새롭게하소서(1137회) 김교준 권사 1부	30 성지가 좋다(507회) 모세오경의 땅, 이집트를 가다 8부
	10:00 00 모미아갓생(6회) 20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원유경 목사	00 매일 주와 함께	20 RE나이브(5회)	00 CBS NEWS 10 20 성지가족(14회)	00 내 삶의 행복(14회)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1:00 00 특별방송] CTSWEEK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50 미리클 Moment 지금 이 순간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30 비전설교 새문안(이상학)	1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245회) 50 예수동행일기(2회)	0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4회)	00 소문난 성경교실(591회) 김영근 목사 첫 번째 1강 슬기로운 신학 이야기: 조대하시는 하나님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504회) 50 복음강단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
	12:00 00 CTS뉴스 20 신앙에세이 30 생명의 말씀 권포제일-권태진	00 GOODTV 뉴스 30 행복한 쉼터 풍성한(김성곤)	1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3회) 20 [말씀]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320회)	00 감신대 화요채플(59회) 30 TV강단 포이에마(수신우인)	20 말씀의 창 은정감리교회 최상일 목사 50 비전메시지 큰은혜교회 이규호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 안양서부-전승환 30 [CTS 30년 믿음의 영작] 내 영혼의 찬양 회복	00 비전설교 중앙성결(한기체) 30 2025 다니엘 기도회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237회) 20 CGNTV 및송특강 <나침반> 시즌2(52회)	00 유포원(689회)	30 비전메시지 청주금천교회 이동규 목사
	14:00 00 [생방송] Calling GOD 50 내가 말이 기쁘게 가수 원혁	00 2025 다니엘 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837회)	00 말씀의 힘 수원목양(유태민) 30 새롭게하소서(1034회) 오대식 목사	00 김상환 목사의 칠 년을 하루같이(141회)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오후	15:00 40 [특별방송] CTSWEEK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금	00 [말씀] 김한요 목사(베일교회)(309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신우민)(3385회) 출애굽기 36강	00 선한목자교회 주일예배실황 김다위 목사
	16:00 30 생명의 말씀 분당횃불-이재희	00 행복영 목사의 비전메시지 30 행복한 쉼터 평택성원(박충권)	00 하용조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7회) 4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3회) 50 [말씀] 도지원 목사(예수비전교회)(114회)	10 통박사 조병호의 통 성경학교(33회) 5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94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17:00 00 수영로의 시간 이규현 50 신앙에세이	00 솔직한 새끼양들의 토크쇼 새끼양 20 사랑의 메시지 충만한(임다릿)	30 [말씀] 박신용 목사(アルバイン온누리교회)(278회)	50 영호의 양식 구세군대한본영	00 월드비전과 C제네비 함께하는 희망터치(12회)
	18:00 00 생명의 말씀 산본양문-정영교 30 부흥 어게인 광주 서석교회	00 리비아초 헤리티지 10 행복한 쉼터 순복음정금(김형근) 40 더 깊은 울림 한성 위십	10 THE NEW 하늘빛기쁨(7회) 50 예수동행집회(1회)	00 TV강단 용인송전(권준호) 30 TV강단 여의도침례(국명호)	00 말씀의 창 홀리스츠교회 서대천 목사 30 고풍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록(31회) 독립을 받침니다
	19:00 20 말씀대로 살라 김선교 선교사	00 장상길 목사의 성령의 장맛비	(내용 없음)	00 이영호목사의 끝끝까지 복음을(586회) 30 TV강단 용인비전(신용수)	00 비전메시지 개명교회 김도경 목사 30 말씀의 창 영광교회 윤보한 목사
	20:00 00 The Ships : 치유의 항해 미리보기 20 위대한 밤길을 30 생명의 말씀 송도나나안-김의월	00 김운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1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진주초대(이경은) 40 오 자유예!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리아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화요성령집회-(4회) 40 담금개-회복프로그램(65회)	00 CBS 비전특강 윤치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50 크리스천걸림 인천제일(이제일)	0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265회) 10 복음강단 오송하늘문화 이재수 목사 40 말씀의 창 서울세일교회 최봉수 목사
	21:00 00 우리 교회는 지금(25회) 50 CTS뉴스	40 GOODTV NEWS	00 상당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4394회) 마태복음 7강 50 살롱 쌀롱(15회)	10 김하나 목사의 말씀강해(54회)
	22:00 2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시편 9강 권수경 목사	00 2025 다니엘 기도회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고향교회 리턴즈, 믿음원정대(3회) 50 예수동행일기(2회)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1137회) 김교준 권사 1부	00 C제네비 매거진 굿데이(342회) 20 소문난 성경교실(588회) 주운석 목사 두 번째 10강 인생 후반전의 믿음: 노년에도 열매 맺는 삶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2회)
	23:00 10 CTS 30년 믿음의 명작 CTS특집다큐 존 웨슬리의 발자취를 따라서	3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10 키일 아이들먼의 포도나무와 가지(8회) 40 생명의 삶 2025년 12월 02일 50 바이블 필름 (요한복음)(13회)	10 2024 한소망교회 감사 부총회(11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1680회)	00 이석 목사의 일어나는 복음을 찾아서(235회)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24:00 00 Calling GOD(238회)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힐링스토리 10 행복한 쉼터 물들들(안호성)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반대요 목사(광주교회)(93회)	10 성지가족(14회) 50 성경골든 이것이 궁금하다(85회)	00 한소망교회 한밤의 기도회(91회) 40 성경 속 전쟁사-에피소드
저녁	1:00 00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원유경 목사 40 원더풀우먼(6회)	10 사랑의 메시지 순복음증(김경문) 40 우리들의 지식살롱 12세	0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65회) 40 [말씀] 윤만선 목사(온혜생물교회)(244회)	00 소망의 말씀 (김경진)(309회) 40 CBS 비전특강 윤치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00 선교는 지금(24회)
	2:00 30 사인사색 김석봉 대표	10 사론의 꽃 필 때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196회)	00 유포원(235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김하나 목사
	3:00 00 두란노 성경교실 : 예수로 읽는 성경 시편 9강 권수경 목사 50 이영훈목사의 힐링스토리	1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Kyle Idleman's Be The Branch(8회) 30 [말씀] 양춘길 목사(필그림선교교회)(607회)	00 유포원(235회)	00 세미한교회 주일예배실황 이은상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서임증 목사 30 내 영혼의 찬양	00 GOODTV 오늘의 찬양 10 생명의 삶 대일리 큐티 20 새벽을 깨우는 말씀 꿈의(김학중)	1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620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393회) 고린도전서 14강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exten<sup>x</sup>er<sup>x</sup> inno<sup>x</sup>ation

SK  
이노베이션

[ 에너지의 무한공식 ]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질문에 질문을 더하고  
+ 시너지에 시너지를 더하면

이노베이션

시대가 원하는 에너지의  
답을 찾습니다

SK 이노베이션